教育學 碩士學位 請求論文

週 5日 授業制의
效果的인 運營方案에 관한 硏究

慶州大學校 敎育大學院

敎育行政專攻

朴　　相　　鎬

指導敎授　李　泰　鍾

2003年　8月

週 5日 授業制의
效果的인 運營方案에 관한 硏究

慶州大學校 敎育大學院

敎育行政專攻

朴　　相　　鎬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指導敎授　李　泰　鍾

2003年　8月

朴相鎬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準함

審査委員長 _____

審 査 委 員 _____

審 査 委 員 _____

慶州大學校 敎育大學院

2003 年 8 月 日

목 차

표 목 차

그림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오늘날 우리사회는 눈부신 경제성장과 함께 정보화, 세계화, 가치관의 다양화 등 사회적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여 살아가야 할 어린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인가?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방향을 건전한 인성발달을 도모하는 다양한 능력과 적성을 존중하며, 독창적이고 유용한 지적가치와 생생한 창의능력을 기르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1)]

이는 지식기반 사회, 평생학습 사회 등으로 표현되는 21세기 사회에는 자기 주도적이고 문제해결 능력이 강한 주체적인 학습자의 육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와 같은 지식중심의 주 6일의 전일제 수업방식은 해결할 수 가 없으며 지식과 실제를 연결시킬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주 5일 수업제가 제기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한지 오래이다. OECD 국가 중 우리만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50여개 국이 주 5일 수업이 시행되고 있다. 가까운 일본도 국제적 흐름에 부응하여 1992년 9월부터 월 1회 실시 1995년부터 월2회 실시 2002년부터 전면적 실시예정으로 단계적 시행에 들어 갔으며, 중국은 1995년 9월부터 전면적으로 주 5일 수업제를 도입하였다. 프랑스의 경우는 주 4일 수업

1) 사창초등학교,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한 주 5일제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 연구학교 운영보고서(1997), p.1.

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다.

우리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미 70년-80년대에 '자유학습의 날', 90년대에 '책가방 없는 날', 97년-98년에 '주 5일 수업제' 시범연구학교 등으로 학습이 진행되어 왔다. 2000년부터 시행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방식의 교육개혁 방안의 하나로 주 5일 수업의 실시를 제시한바 있고,[2] 2000년 10월 정부의 노사정위원회의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단계적 추진 발표가 주 5일 근무제와 함께 학교 주 5일제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계기가 되었다.[3]

제 7차 교육과정의 기본방향은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을 위하여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교육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 질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생의 발달 정도에 알맞게 이루어지도록 교과와 특별활동, 재량활동의 상호보완을 통하여 주제 탐구학습, 소집단 공동학습, 체험학습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4]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큰 변화의 흐름에 교육관도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학교교육은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지나친 심리적 부담감에서 벗어나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풍부한 자연체험과 사회 ·문화 체험을 통해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요구된다.

학교 주 5일 수업제는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놀이, 여가활동, 자연체험, 사회체험, 생활체험 등을 통하여 학교의 교과활동에서

---

2) 교육부, 우리학교 달라져야 합니다, 교육개혁 추진기획단(1995), p.39.
3) 정광희 ·이윤미 ·이명실,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학교 운영 방안 연구, 교육부위탁연구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2000), p.1.
4) 한국교육과정학회, 새 학교 문화창조와 교육과정, 한국교육과정학회(1999), pp.15-24.

배운 내용을 보다 심화시켜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근본취지는 학생들에게 주체적인 학습능력과 자질을 길러주며 더 나아가서는 가족과의 유대증진과 지역에서의 사회체험을 통해 바람직한 인간성을 형성시켜 주는데 있다.[5] 따라서 가정과 지역사회의 교육적 역할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체험적 학습을 통해 바람직한 인간성을 형성케 함으로 공교육만이 학교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한 개혁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기대되는 교육적 효과만을 앞세워 성급하게 학교 주 5일 수업제을 도입하는 것은 단지 아동들을 학교 밖으로 밀어내어 학력저하, 사교육비 증가로 학부모님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 도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72개 학교가 2002년 3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주 5일 수업제 관련 연구시범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 ·도교육청 지정 시범연구학교가 1단계로 운영되고 있으며[6], 연구실험학교 2단계로 시 ·군별 유 ·초 ·중 ·고 1개교씩 확대 실시 계획이며 2004년부터 전국적으로 월 1-2회 실시한 후 2006년부터는 완전 주5일 수업제를 단계적 접근모형을 제시하고 있다.[7] 우리는 이미 70년-80년대에 '자유학습의 날' 90년대에 '책가방 없는 날' 97년-98년에 '주 5일 수업제' 시범연구학교 등으로 학습이 진행되어 다소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근대적 학교제도 120년 동안 실시해온 주 6일에서 주 5일 수업제로 전환은 학교교육은 물론 가정과 사회구조까지도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주 5일 수업제 연구 시범학교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간추려 보면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는 법정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확보와 주 2일 휴업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우

5) 교육부, 학교 주 5일 수업제 안내, 학교정책과(2001), p.2.
6) 교육인적자원부, 연구학교 운영 개선 방향 탐색, 연구학교담당장학관 워크숍 자료집(2002. 2), pp.8-13.
7) 이도인 외 4인, 주 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방안, 교육인적자원부 위탁연구과제, 한국 주 5일 수업제 연구회(2001), pp.18-20.

려하고 있으며, 생활지도 면에서는 맞벌이 부부 자녀들에 대한 가정의 생활지도 공백 및 사교육비 ·학부모들의 부담 증가 등을 지적하고 있다. 사회 지원체제 측면에서는 학생들을 수용할 프로그램 및 체험학습 할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미흡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주 5일 수업제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에 비취 보면 교육적 관점에서 이를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해 갈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이미 주 5일 수업제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참여했던 초등교원들의 인식을 토대로 주 5일 수업제의 운영환경, 주 5일 수업제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체제 및 협력관계 등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주 5일 수업제의 확대 시행 및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대상,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주 5일 수업제이며 연구의 내용상 범위는 연구 ·시범학교 운영보고서와 교사들의 인식을 토대로 분석하여, 주 5일 수업제의 확대 실시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 ·도교육청 지정 주 5일 수업제 연구시범학교에 한정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방법에 의거하여 주 5일 수업제 연구시범 운영학교 연구보고서와 선행 연구논문을 분석하였으며, 질문지 조사방법에 의해 실증적 자료를 수집 분석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주 5일 수업제의 개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은 주 6일 수업으로 시행되어 왔다. 이것은 「주 6일 근무제」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전 주 6일 근무제가 2000년 10월 노사정 합의에 의해 단계적으로 주 5일 근무제로 바뀌게 될 시점에 와 있다. 이제 학교의 주당 개교일은 5일로 하자는 것이며 그 중 1일은 가정과 지역사회에 되돌려 주자는 것이다. 이는 교육의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이 있으나, 사회와 노동계의 추세가 주 5일 근무제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교육계에서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운영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주 5일 수업제에 대한 여러 연구 보고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일치되고 있지 못하여, 주 5일 수업제를 「학교 주 5일제」, 「학교 주 5일제 수업」, 「학교 주 5일 수업제」, 「 학교 5일제 교육」, 「주 5일 교육」,「학교 주휴 2일제」, 「가정 2일제」등으로 표현이 일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8] 초기 단계인 현재로서는 용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도 언제 가는 합의될 필요가 있기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주 5일 수업제」, 「주 5일제 수업」, 「학교 주 5일제」의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

주 5일 수업제란 1주일 동안에 5일간 학교를 의도적으로 연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휴교하는 날은 반드시 토요일이 아니라도 좋은 것이다.
유럽에 위치한 여러 나라의 주 5일 수업제에서는 가장 많은 형태가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어서 쉬는 쪽이지만, 프랑스에서는 수요일과 일요일이

8) 이도인 외 4인, 전게서, p.9.

휴교일로 되어 있고 게다가 토요일도 반일로 된 상태인데 그 것마저 휴교일로 하자는 실험학교가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 5일 수업제라고 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어서 쉬는 것이라는 고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1주일 중에 5일간만 학교를 연다는 유연한 생각을 가지자는 것이다.[9] 즉 주 5일 수업제는 현재 주 6일 수업일로 된 학교교육과정을 1주에 5일 동안 운영하고 1일을 휴일로 하는 교육제도이다. 단순히 학교 수업일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의 교육일수를 늘이는 것이고 학생은 스스로 배우려는 의욕과 주체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이나 자질 태도를 몸에 익혀 자기의 인간형성에 도움이 되는 평생학습의 기회를 길러나가게 되는 것이다.

주 5일제 수업이란 일주일에 5일만 학교에 등교하여 정규교과 수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 5일제 수업은 5일간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1일은 가정에서 다양한 체험으로 학교학습을 심화 보충하는 학교 운영 방식이다. 주 5일제 수업은 효율적인 학교운영 방안 또는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 방식의 하나로 그 근본 취지는 학생들에게 주체적 학습능력과 자질을 길러주며 더 나아가서는 가족과의 유대증진과 지역에서의 사회체험을 통해 바람직한 인간성을 형성시키는데 있다.[10]

학교 주 5일제란 일주일에 5일만 학교에 등교하여 정규교과 수업을 하고 1일은 학생들의 경험의 장을 학교라는 제한된 공간으로부터 사회, 자연, 취미와 문화생활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자기의 생각에 따라 계획하고 생활체험, 사회체험, 자연체험 등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갖게 하는 학교 운영 방법이다.[11] 또 정광희(2000, 2001)는 일주일 중 5일간은 학교가 중

9) 상게서, pp.7-8.
10) 유한구 ·조수연 ·김승호, 주 5일제 수업에 대비한 교육과정 체제 구조개선 연구, 서울대학교교육과정 연구위원회(1999), p.6.
11) 손응, 「주5일제 수업도입 배경과 의의」, 서울교육 통권 162호(2001. 3.),

심이 되어 학습활동을 전개하고 나머지 2일간은 학교 밖에서 학습한다는 주 7일간의 학습이 전제되어 있으며 학교의 교사만이 아닌 가족구성원, 사회구성원 등이 상호 연계 속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중시된다고 하였다.[12)]

위와 같이 용어 사용에서도 국내 학자간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외국의 경우를 보아도 일본의 경우 「학교 주 5일제 」, 「학교5일제」가 병용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주 5일제」, 혹은「주 5일제 수업」으로 사용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Semaine de 5 jours」(주 5일제)로 표현되고 있으나 학교교육 조직이라는 맥락에서 학습효과와 아동의 생활을 중심으로 한 시간조직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학교 주 5일제」, 「주 5일제 수업」, 「주 5일 수업제」라는 용어에서 함의하는 바는 다르지만 함께 사용하여도 별 무리가 없다. 주 5일제가 '완전한 5일제 학교운영'을 가정한다면 주 5일 수업제는 현재 실정과 보다 관련된 용어 일수 있다. 즉 부분적인 5일제 학교운영을 하는 경우 토요일 프로그램을 학교가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는 현실적 사정을 고려할 때 주 5일 수업제라는 용어가 현실적, 행정적 범위 안에서는 보다 적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13)]

주 5일 수업제 보다 학교 주 5일제가 더 포괄적이나 본 연구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 5일 수업제라는 용어를 기본으로 사용하며 다른 용어와 배타적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

pp.45-47.

12) 정광희 ·이윤미 · 이명실, 전게서, pp.11-13.

13) 이윤미 외 3인, 학교 주 5일제 운영 관련 사회적 인프라 구축방안, 교육인적자원부 수탁연구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2001,12), pp.13-14.

2. 주 5일 수업제의 논의의 배경

학교의 주 5일 수업제의 논의 및 그 현실화 가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은 2000년 10월 노사정위원회가 주 5일 근무제 합의에 대한 발표가 있은 후, 교육계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절대적 시간이나 일정한 시간(초 ·중교육법 시행령) 내에 이루어지는 학습의 강도나, 내용에 대해서는 정해진 표준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속된 것이며 약속의 과정은 때때로 힘의 논리나, 혹은 정치적 역학관계를 반영한다. 따라서 학교를 일주일에 몇 번 나갈 것인가, 혹은 하루에 몇 시간씩 수업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은 교육외적인 논리나 배경에 의하여 문제 제기되고 논의되며 심지어 결정될 수 있다.

이러한 현실 논리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과 관련된 최종적인 결정은 궁극적으로 교육적 맥락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교육외적 결정 사항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되는 대상은 학교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들이며, 이들의 교육적 필요와 관련된 사항들은 사회정치적 효율성에 대한 요구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교육적 관점에서 일차적으로 여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의 학교교육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의하여 관리되는 공교육이라는 특성이 있다. 이는 국민 대중에 대한 보통교육의 특성책임이 일차적으로 국가에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교육이 공공적인 사안임을 의미한다. 국민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교육되고 있는가 하는 점은 해당국가의 역량에 대한 지표가 되기도 한다. 국가에 의한 대중적인 학교교육은 어느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 편중되지 않는 균등한 교육기

회와 내용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즉 학교교육이 지니는 공공성은 교육이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필요에 의해 도출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고민될 사안이라는 점과 학교는 일정한 의미에서 부모나 지역사회가 제공할 수 없는 교육을 위탁받아서 행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14)]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학교의 수업을 주 6일에서 5일로 줄이는 문제는 단순히 학교 가는 날을 하루 줄이는 의미라기보다는 학생들의 학습형태가 변화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가. 교육 외적인 요인

주 5일 수업제에 대한 논의는 우리교육의 내적 측면을 주로 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교육 외적인 요인들에 의하여 촉발되어 왔기 때문에 배경을 밝히는 차원에서 교육 외적 측면을 먼저 살펴본다.

1998년 경제위기 이후 산업구조 조정 등의 논의를 위해 형성된 노사정위원회에 의하여 2000년 10월 24일 주 5일 근무제 실시가 확정되었다. 이는 노동자, 사용자,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노동시간 감축, 휴일 휴가제도의 국제기준 적용, 교육훈련 및 여가 시설 확충 등을 비롯하여 학교 주 5일 수업제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노동시간 단축의 논의는 산업화 이후 노-사간에 최대의 쟁점이 되어 온 문제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는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보여지듯이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간적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쟁점화 되어 오다가 '삶의 질 향상과 여가시간의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어 경제성장 일변도의 논리를 벗어나 국민들의 여가를 활용하고 삶의 여유를 가지게 된다는 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14) 정광희 ·이윤미 ·이명실, 전게서, p.15.

문화적 측면에서 상당히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 일 수도 있다.[15]

주 5일 수업제의 문제도 노동시간 단축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그 자체의 효과로서 논의되기보다는 다른 제도 정책들과 결합되어 이해되고 추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회마다 주 5일 수업제와 주 5일 근무제가 정당화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으나 양자가 관련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정광희, 이윤미, 이명실은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그것이 교사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직을 공무원과 같은 특수한 직종으로 분류할 것인가, 일반 노동직과 함께 분류할 것인가의 문제를 떠나서 교직 또한 하나의 직업으로서 주 5일제의 직업으로서 주 5일 근무제의 적용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며, 이에 따른 근무시간의 변화는 학생들의 수업시수 및 수업일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는 학부모의 여가 시간 증대에 따른 가족생활 형태의 변화이다. 주 5일 근무제의 영향을 모든 직종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과 여가시간에 개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방식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족단위의 여가활용이나 체험활동이 이전에 비하여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의 교육을 학교에 위탁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개입해 나갈 여지가 높아지게 된다.[16]

따라서 주5일제 근무제 시행에 따른 주5일 수업제의 도입은 외양적으로 경제적 문제와 밀접히 관련된 사항으로만 보일 가능성은 있으나 사실상 기존의 근로 여가 형태의 전반적 재구조화를 요구하는 매우 근본적인

15) 상게서, p.16.
16) 상게서, p.19.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교육 내적 요인

주5일 수업제에 대한 논의라 비록 주5일 근무제와 같은 외부요인에서 시작되었다하더라도 이 문제는 교육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광희, 이윤미, 이명실은 주5일 수업제의 교육내적 요인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학교교육의 위기 의식 고조에 따른 학교교육 한계와 역할 재정립 요구에 그 요인을 두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최근 공교육에 대한 접근적으로서 자유학교, 대안학교, 탈학교론 등의 움직임이 있다. 이러한 교육 운동은 이미 나름대로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도 있는가하면 실험단계에 있거나 아직은 이념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움직임 후에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다. 그것은 현재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 부분적 개혁이라기보다는 근본적 개혁이 추구되고 있다는 것, 내용적으로는 아동의 인권과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기저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 같은 '또 하나의' 학교운동이 시작된 데에는 배우는 주체인 아동, 학생들이 학교를 거부하기 시작한 것도 한 몫을 차지한다. 교과교육의 부적응아, 왕따, 청소년 폭력 등으로 발생되는 등교 거부 학생들의 증가는 이제까지의 교육과 학교 교육의 운영에 근본적인 점검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학교교육의 문제들은 공교육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대중적 교육을 표방하며 교육기회의 확대를 추구해 온 학교교육이 그 누구의 요구에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여러 징후들이 사회적으로 부가되면서 새로운 교육적 대안들이 논의되기도 한다.

이는 학교교육이 공교육으로서 지니는 교육력 자체의 문제이면서 궁극적으로는 학교교육을 받는 수혜자로서의 학생들의 자기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현실 적합성과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학생들의 잠재력 실현의 맥락에서 세워져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의 위기 현상이 '학생 중심 교육'을 표방하는 최근의 개혁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특정 개혁 경향에 의하여 나타나는 한시적 현상이기보다는 대중적 학교교육 자체의 한계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다.

결국, 학교 주 5일제는 이러한 총체적인 교육 재검토의 요구 선상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학교 운영 형태로서, 보다 다원화되고 빠른 속도로 정보화되는 새로운 사회적 조건에 적응하는 학교교육의 변화를 도모하는데 의미있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7)]

그 기저에는 현재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 부분적인 개혁이 아닌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내용적으로 이동의 인권과 개인의 자유 및 개성의 중시가 담겨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한 새로운 학교 운영 형태로서 제안 될 수 있는 것이 주 5 일 수업제이다.

둘째,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하는 교육 시스템의 재구조화 필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학교교육은 그 공공성 개념을 통하여 기존에 가정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교육적 역할을 국가, 사회로 대체하여 왔다. 그러나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이 존속하면서 학교교육은 학력사회에서 학력을

17) 상게서, p.20.

인정받기 위한 기제로서 의미가 주로 강화되어 왔고, 사교육은 학교교육과 병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사교육과 공교육의 병존 현상은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 학생의 성장에 기여할 경우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만, 상호 무관하게 서로 다른 목적으로 학생의 학업 부담을 무계획적으로 가중시키는 경우 교육력의 낭비를 초래한다.

학교와 가정, 사회가 상호 보완적인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중시되는 이유, 주로 이기주의적 동기에 의하여 비대해진 사교육열을 공교육적 열의로 흡수하여 가정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적 교육력 낭비를 줄이는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학교 주 5일 수업제는 학교활동만이 아니라 학교 외 활동의 교육적 의미를 중시한다는 관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휴업일 학습 등에 대해서 학교와 가정, 사회의 공동적 노력을 요청하고 있다.[18)]

이와 같은 점에서 주 5일 수업제는 학교-가정-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면이 아주 많다. 학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열을 긍정적으로 흡수하면서 다양한 환경의 학생들이 학교나 학교외의 공간에서 지역사회의 협조와 지원을 통하여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평생학습 사회의 도래와 자기 주도적 학습의 중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21세기는 20세기 산업사회와는 매우 다른 지식과 그 활용능력을 요구하는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제한된 연수의 제도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며 학습은 평생 이루어져야 한다는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변화하는 사

18) 상게서, p.21.

회에서 적응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제반능력을 갖추도록 교육체제를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교육개혁도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요구에 따라 학생의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즉, 각종 체험학습을 정규교과나 교과 외 활동과 연계하는 학습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제대로 진단해 냄으로써 다양한 능력을 키우는 학습을 지향하는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물론 학교나 지역사회의 교육적 여건은 이러한 교육적 변화를 이끌어 낼만큼 성숙되어 있지 못하며,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의 인식, 그리고 학생들의 요구 역시 여전히 기존의 입학위주 교육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주지교과 학습을 강조하고 교과서와 교실수업에 의존하며 학생들의 학습량을 비효율적으로 가중시켜온 기존의 교수-학습방식이 급속한 사회변화의 흐름 속에서 크게 도전 받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 앞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이란 몇 년간 학교를 다녔는가 혹은 얼마나 많은 량의 지식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다.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문제를 얼마니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와 같은 상황 인식력과 판단력, 체득된 지식의 적용력, 창의력 등 주체적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제 능력인 것이다. 이러한 능력은 기존의 일방적인 전달식 교수방법이나 교실이라고 하는 제한된 학습공간에서보다는 확대된 교육의 장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보다 풍부하게 체득될 수 있다.[19]

이러한 점에서 주 5일 수업제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강화시켜 자기 주도적 학습의 기회를 늘려 주체적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교육의 변화요구가 설득력을 갖는다. 나아가 주 5일 수업제의 원활한 시행은 평생

19) 상게서, p.22.

학습 사회에 실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학교와 지역사회간의 연계, 지역사회 내 여러 기관과의 연계, 학교를 포함한 기관과 행정부처와의 연계를 마련해 줄 것이다.

넷째, 수업량의 감축과 삶의 질 측면에서 요구되는 여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최근 삶의 질 문제가 제기되면서 아동의 인권문제가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과중한 학습량과 학습시간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에 학습량의 감축과 그에 따른 여유라고 하는 직접적인 기대효과를 포함하고 있는 주 5일 수업제는 매우 유의미한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다. 교사입장에서도 주 5일 수업제는 과중한 업무를 줄이고 시간적 여유를 늘인다는 면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다.

주 6일 동안 이어지는 현재의 수업상황에서 학생이나 교사가 주중 공통적으로 많은 업무와 학습량의 부담을 지니고 있다고 볼 때 휴업일이 연장된다는 것은 이러한 학생과 교사들의 삶에 재충전의 기회를 줄 수 있다. 휴업일의 연장은 단지 쉰다는 의미보다는 학교교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의 범위를 벗어나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다.[20)]

이는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심리적 여유를, 교사들에게는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연구의 시간을 줄 수 있어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한편 손응은 주 5일 수업제의 교육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첫째, 학생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어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만남의 기

20) 상게서, p.23.

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행복을 추구하게 한다.

둘째,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간성을 형성하는데 있어 마땅히 있어야 할 가정과 지역사회의 교육적 역할과 역량을 회복시킨다.

셋째,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길러 평생학습 사회 속에 살아갈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있다.[21]

따라서 주 5일 수업제의 교육적 요인으로 학교교육의 한계와 역할 재정립, 교육시스템의 재구조화, 자기 주도적 학습력과 평생교육의 필요성, 삶의 질 측면에서 요구되는 여유를 들 수 있으며, 주 5일 수업제가 교육 외적인 요인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하더라도 그 시행과정과 단위학교에서의 실천은 교육적 의의를 살려 풀어가야 할 것이다.

3. 주 5일 수업제와 휴업일

주 5일 수업제는 개념상 일주일에 5일만 등교하여 정규교과의 수업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1일을 휴일로 하는 교육제도이다. 나머지 1일 휴업일을 어떤 시각에서 보고 또 어떻게 계획하고 운영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을 생각할 수 있다.

주 5일 수업제에서 휴업일은 토요일로 하는 것이 하나의 상식처럼 되어있다. 그러나 그것은 고정관념이다. 프랑스의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매주 수요일을 쉬는 주 5일 수업제를 운영하고 있다. 정규수업이 없는 수요일에는 학부모가 아동을 데리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곳에 가기로 되어 있다. 맞벌이 부부인 가정의 경우에는 일일교사가 부모를 대신하여 보호자 역할을 해 준다고 한다

---

21) 손응, 전게서, p.45

토요일이 아닌 주중 어느 날을 휴업 일로 하든 세 가지 장점을 가진다고 유한구, 조주연, 김승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일주일 내내 교실에서 교과활동만 하기보다는 중간에 한번쯤 분위기 전환을 가져다줌으로써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

둘째, 모든 초 ·중 ·고등학교가 토요일을 휴업일로 할 때 교통혼잡이나 체험학습 장의 시설 부족을 겪을 수 있는데, 주중의 어느 하루를 휴업일로 하게 되면 학교의 형편에 맞게 휴업일이 분산되어 그러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셋째, 토요일을 휴업일로 할 경우, 토요일에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4시간은 어떤 체험학습을 하든지 간에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22)]

하지만 서울대학교 교육과정 연구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학부모와 교사의 대부분이 토요일을 휴업일로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한국교육개발원 의 교육부 위탁연구에서도 학부모(77.14%)와 교사(81.96%)는 물론 학생(51.51%)들까지 토요일을 희망하나,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수요일을 희망하는 비율이 증가 추세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정광희, 이윤미, 이명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토요일에는 교과수업이 별로 없으므로 그 시간에 학생들의 취미와 적성을 살려 줄 수 있는 체험학습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현실적으로 평일을 휴업일로 할 경우 그 부족한 수업시수를 메우는 일이 쉽지 않으므로 토요일 4시간만을 체험활동 등에 할애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다.

셋째, 토요일과 일요일을 연계하여 비교적 많은 시간에 요청되는 큰

22) 유한구 ·조주연 ·김승호, 주 5일제 수업에 대비한 교육과정 체제 구조개선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과정연구위원회(1999. 12), pp.20-21.

범위의 체험활동, 탐구활동, 수련활동 등을 연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토요일이 휴업일로 적합하다는 것이다.[23]

주 5일 수업제의 휴업일은 주중 어느 날로 하거나 토요일에 하는 문제는 주 5일 수업제의 운영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정해 질 수도 있고, 지역사회나 학교에 자율성이 주어진다면 그 지역과 학교의 여건에 따라 정해 질 수 있다. 다만 사회적 여건을 바탕으로 교육적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주 5일 수업제의 외국사례

유럽의 여러 나라는 주 5일 수업제가 실시 된 지 오래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에서도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여기서는 현재 주5일 수업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의 운영 방식을 중심으로 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가. 일본

일본은 주 5일 수업제 도입을 통하여 자연, 사회, 생활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창조적, 자율적 태도 및 미래에 대한 임기응변적 대처능력을 육성하고 비교적 많은 여유 있는 시간을 가정과 지역사회에 돌려줌으로써 가정과 지역사회의 교육력을 강화시켜주며, 교사들에게는 주 2일의 휴일을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교사로서의 자질, 능력, 태도를 갖추기 위한 자기연수를 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고자 하였다.[24] 이를 위해 1992년 9월부터 월1회 도입하여 1995년에 월2회로 확대

23) 정광희 ·이윤미 ·이명실, 전게서, p.254.
24) 유한구 ·조주연 ·김승호, 전게서, p.29.

시작되었으며, 2002년부터 완전 주 5일 수업제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의 주 5일 수업제의 시행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986년 4월 : 주 5일제 수업 시행에 대한 검토(임시교육 심의회)

○ 1988년 8월 : 주 5일제 수업을 위한 조사연구 협력자회의 발족 및 조사 협력 학교 68개교 지정(연구기간 : 1989-1990년 월1회 또는 월2회 시행)

○ 1992년 2월 : 조사 연구 협력자회의 심의 정리(월1회 실시를 제안)

○ 1992년 3월 : 학교교육법시행령규칙의 일부 개정하여 매월 제2토요일을 휴업일로 지정함.

○ 1992년 9월 : 월 1회 주 5일제 수업 전국 실시.

○ 1994년 4월 : 주 5일제 수업 월2회 시행 조사연구 협력학교 733교 지정

○ 1994년 11월 : 조사연구 협력자회의 심의정리 및 학교교육법시행령 규칙의 일부 개정 (제 4주 토요일도 휴업일로 추가 지정)

○ 1995년 4월 : 월 2회(제2·4주 토요일) 주5일제 수업 전국 실시하였으며, 문제점을 보완하여 연간 70시간과 학습내용 30%를 감축하여 2002년부터 월 4회 토요일을 휴업일로 하기로 하였다.[25]

또한 주 5일 수업제를 위해 학교 안에서 이루러지는 수업의 결과만을 학력으로 국한하지 않고,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체험활동에서 얻어지는 지식을 소중히 여기는 학력관의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력관을 바탕으로 “여유학습”, “생애학습”, “체험학습”에 관심을 두고 있다.[26]

---

25) 서울특별시교육청, 주 5일 수업제 조사연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2001), pp.111-112

26) 구남응, 「주5일제 수업 국내·외 운영 사례 및 시사점」, 서울교육, 통권 162호 (2001.3), pp.48-53.

교육과정 운영은 시행초기에 주 6일제 교육분량을 주 5일에 이수시키기 위하여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였으나 완전한 주 5일 수업제 실시를 위하여 2002년 4월1일부터 시행을 목적으로 문부성고시 제175호를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 외 주 5일 수업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학부모 홍보, 휴업일 대체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습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시 ·군 ·구에서는 “주 5일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주 5일 수업제는 2002년에 전면 실시함에 10여 년 동안 단계적으로 적용해 왔으며 지금까지 시행해 오면서 나타난 효과와 문제점을 찾아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먼저 효과에 대해서 구남웅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과거의 지식 ·이해를 중시하는 학력관에서 벗어나 관심, 의욕, 태도 등을 중시하는 새로운 학력관으로 변화하였다.

둘째, 서양 따라잡기 교육에서 벗어나 “여유”와 “생활력”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배우고, 주체적으로 판단하며 행동하고, 문제를 보다 잘 해결하는 자질과 타인과 협력할 수 있는 인간을 육성하는 미래 지향적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27)]

이러한 효과와는 별도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주 5일 수업제는 장기적인 계획 아래 단계적인 실시를 추진한 점과 교육적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노력들은 주목할만하나,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서 보듯이 사회교육의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가운데 구체적이고 다양한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으면 막대한

27) 상게서, p.50.

교육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나. 독일

독일에서 주 5일 수업제에 관한 논의는 1950년대 중반부터 진행된 주 5일제 근무와 연관을 맺고 있다. 1976년 각 주별로 부분적인 주 5일 수업제 도입을 결정하였고, 1992-1993학년도부터는 전면적인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주 별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독일 교육의 특성상 세세한 점에서는 주에 다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하고 상급 교육청에 신청하는 방법을 취하였다.[28)]

정광희, 이윤미, 이명실은 독일의 주 5일 수업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주 5일 수업제를 도입할 당시 장점과 문제점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고 지금도 논의되고 있다. 주 5일 수업제와 관련된 주요 논의에서는 교육적 논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주 5일 수업제가 가져오는 교육적 효과는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주 5일 수업제가 학생에게 수업 부담을 가중시키지는 않는지 주 5일 수업제를 도입할 경우 학교의 교육과정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현재의 학교 교육적 여건을 고려할 때 주 5일 수업제가 가능한 지, 기타 교육적인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되었다. 주 5일 수업제는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문제이지만, 학부모나 교원의 표를 의식한 정치 논리나, 경제적인 효과를 의식한 경제논리는 논의 가운데서 배제되었다. 교육적 논리에 따라 주 5일 수업제의 장점과 문제점이 논의되었기 때문에 일반 직장의 주5일제 근무와도 별개로 시행되었고, 토요일 근무에 대한 교원들이 불만도 찾을 수 없었다.

---

28) 정광희 ·이윤미 ·이명실, 전게서, pp.38-46.

둘째, 독일의 주 5일 수업제는 단계적으로 도입되었다. 각 주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먼저 매달 1-2회 토요일을 휴일로 하는 제도가 1970년대 중반부터 15년 정도 시행해오다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성숙해지고 교육적 여건이 마련된 다음 1990년대 초부터 전면적인 주 5일 수업제가 시행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현재에는 별 문제점 없이 완전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

셋째, 독일의 주 5일 수업제는 원칙적으로 개별학교의 자율 선택사항이다.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주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 원칙적으로 개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주 5일 수업제의 도입과 폐지를 결정할 수 있고, 운영형태를 결정할 수 있다. 개별학교의 교원, 학부모, 학생들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 교육부나 교육청의 간섭을 막고 학교자치의 모범적인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넷째, 독일의 주 5일 수업제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개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5일제를 선택할지 6일제를 선택할 지에서부터, 5일제를 할 경우 평일 수업 시간을 어떻게 구성할지, 휴식시간 ·점심시간을 어떻게 할지, 방과 후 활동문제 등 주 5일 수업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자율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독일의 주 5일 수업제의 실질적인 운영형태는 개별학교별로 모두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에도 주 6일제를 실시하거나, 부분적인 주 5일제를 실시하는 학교가 있고, 부분적인 주 5일제에 있어서도 월 1회 또는 월 2회 등 다양하며, 여름에만 주 5일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다섯째, 주 5일 수업제 도입 이전에 사전준비가 충실히 이루어졌다. 먼저, 교육과정의 개정 및 수업시수를 단축하여 학교 주 5일제 도입을 촉진하였다. 일반 직장의 주 5일 근무제가 이미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현재 완전 정착되었기 때문에 주 5일 수업제 도입을 순조롭게 하였다. 추

가적인 교실확보, 매점 설치, 휴식시간 조정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주 5일 수업제 정착을 지원하였다.

여섯째, 토요 휴일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강구되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에게는 이미 토요일이 휴일이었고, 자녀들이 토요일에 쉴 수 있게 되자 가족 단위의 여가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였고, 학생들은 이에 따라 생활하였다. 교원들에게는 토요 휴무가 업무의 경감을 가져오지는 않았다. 출근은 하지 않았지만 수업준비, 숙제점검, 잡무처리 등의 업무을 휴무 토요일에 활용하였다. 즉, 독일의 토요 휴일은 철저히 학부모의 책임 아래 교육활동 또는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정교육의 날이다.[29)]

일찍부터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었던 독일은 각 주마다의 여건에 따라 오랜 시간을 거쳐 주 5일 수업제 운영되어 왔으나 그 평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주 5일 수업제 운영의 장점은 1)학부모(특히 맞벌이 부모)와 학생들이 함께 있는 시간과 여가 선용 시간이 늘어난 점. 2) 학생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점. 3) 교사들 역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점. 등을 들 수 있으며, 반면 단점으로는 1) 수업 기간이 5일로 단축되어 모든 교육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타이트하게 움직인다는 점. 2)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많은 휴식기간 때문에 월요일 학교교육의 적응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 3) 교육과정 운영상 평일 오후에도 수업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30)]

---

29) 정광희 ·이윤미 ·이명실, 전게서, pp.45-46.

30) 독일의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오후 수업이 없다. 학생들은 방과 후 집에서 점심식사를 한다. 예를 들어 주당 30시간의 수업이 있을 경우매일 6교시 수업을 점심시간 없이 진행하고 학생들을 귀가한다. 오후 수업은 학생, 학부모, 교사들 모두 반대하고 있다. 학생들의 과도한 수업을 걱정하고, 방과 후 학생들의 수많은 자유 여가활동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기 때문

4) 체육관이나 수영장 시설 활용 시간을 조절하기 어렵다는 점. 5) 방과 후 동호회, 클럽 등 각종 단체활동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 6) 오후 수업이 있는 날은 숙제가 없는 점등을 들고 있다.[31]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독일의 주 5일 수업제의 성과에 대해 유한구, 조주연, 김승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주 5일 수업제가 시행되면서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위하여 학교, 학부모, 그리고 지역의 사회교육 담당자들 사이에 활발한 연계가 이루어졌다. 학교시설이 개방되고, 지역사회 시설이 아동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섰으며, 지역에 "아동의 마을"이 탄생하는 등 주 5일 수업제 정착을 위하여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역사회 전체가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32]

다.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학교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아동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의 조직 문제로서 접근하고 있다. 각 지역별로 다양한 실험을 통해 학교시간 조직을 발전시켜왔으며, 따라서 특수한 지역환경과 학교환경에 맞추고 개인의 아동의 리듬을 고려하는 현대적인 시간표 조직을 추구한 결과 그야말로 천차만별의 시간조직 현황을 보이고 있다.[33]

학교시간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빠르뜨네 지역 사이트 연구(89-91년)

수요일 오전과 토요일 오전 수업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를 알아보고자 한 실험 연구로서 사회 문화적 배경과 지리 및 학습 조건과 환경이 유사

이다.

31) 정광희 ·이윤미 ·이명실, 전게서, p.44.
32) 유한구 ·조주연 ·김승호, 전게서, p33.
33) 정광희 ·이윤미 ·이명실, 전게서, p.76.

한 세 연령층의 아동들(6-7, 7-9, 10-11세)을 수요일 학습집단과 토요일 학습집단을 비교 연구했다. 연구방법은 일년 3회의 테스트와 계속 관찰이었고 연구결과로 학업 성취도면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토요일 학습 성취도가 높고 학습 태도면에서도 토요 집단이 우수하고 기본 수면시간의 확보에서도 토요 집단이 훨씬 규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로안느, 물루즈, 쥬에사이트 비교 연구(92-93년)

새로운 시간 조직인 주4일제가 기존의 주 4일제와 비교하여 6-7세 아동 집단과 10-11세 아동 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했다. 연구방법은 위와 마찬가지로 주의 집중력, 수업태도, 수면, 여가활동을 관찰하는 방법을 택했다. 세 실험사이트의 560여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 비교 실험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기존의 주 4일 반제 아동 집단의 주의 집중력이 더 높고 수업 태도에는 별 차이가 없으나 주 4일제 아동 집단의 수면 시간이 더 짧아지는 현상을 보이는 것을 지적했다. 후유증 문제에 있어서는 기존 시간표 집단이 월요일과 토요일에 학습율이 저조한 반면 새 시간표 집단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저조한 현상을 보였다. 일과 리듬은 기존반은 오전에 주의력이 점점 고조되고 점심 식사 후 저하했다가 오후에 다시 고조되는 일반적인 현상을 보이고 새 반은 이에 상반되는 현상을 나타냈다.

3) 부르그, 실리 사이트 비교 연구(94년)

주 4일제가 농촌지역 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연구한 실험이다. 기존 시간표와 새 시간표에 따른 농촌학교의 6-7세 아동집단과 10-11세 아동집단을 대상으로 비교 연구한 결과 농촌지역이 도시보다 주 4일제 도입에 따른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실험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시간조직에는 아동의 연령, 사회 문화적인 환경, 지리적 환경, 방과 후 활동의 내용과 실행 가능성이 반드시 고려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성공한 실험 사례들을 보면 학교수업과 방과 후 활동간에 상호 관련성을 존중하여 일과 시간을 조직했고 아동들의 생체 리듬과 심리를 고려했고 연중에 걸쳐 규칙적으로 실행했으며 구체적인 도시계획의 일부였다는 공통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반대로 실패한 사례들의 공통요인은 시간조직을 성인들의 필요성이나 지역행정에서 강요한 계획에 따라 짜서 아동들의 피로를 증가시키고 사회 계층간의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점들이다.[34)]

프랑스의 주 5일 수업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지방 자치구에 따라 다르나, 휴업일을 전통적으로 토요일이 아닌 매주 수요일로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반일제 학교와는 달리 주당 24시간의 정규학습과 2시간의 지도학습 시간이 9개의 반나절[35)]에 배분되면 전일제 수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요일은 과외활동의 날로 정하여 학생들의 개인적으로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살리는 교육을 받고 있다.[36)]

또한 프랑스는 주에 따라 이미 15-20%의 학교가 주 4일제 수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요일과 토요일을 휴업일로 하고 연간 수업시수 확보를 위해 여름 방학이 짧아지고 있다.[37)]

라. 시사점

외국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추진과정, 교육과정 운영, 휴업일 교육프로그램과 사회교육시설 활용,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추진과정에서 주 5일 수업제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점진적

34) 상게서, pp.67-68.
35) 월, 화, 목, 금요일의 오전, 오후와 토요일 오전 시간을 의미
36) 유한구 ·조주연 ·김승호, 전게서, p.33.
37) 구남응, 전게서, p.33.

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은 교육적 관점에서 지역이나 단위학교별 자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여러 나라는 수 십년 동안 그 나라의 종교나 사회여건에 따라 교육적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왔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10년 간의 장기계획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나 완전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시점까지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국민적 정서가 비슷한 우리나라에도 고려할 사항이다.

둘째, 주 5일 수업제 교육과정 운영은 '주 5일 수업제 교육과정'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국가들이 교육과정 개정과 수업시수 감축없이 시행한 결과 학습부담이 가중되는 등 실천상의 어려움을 겪었음을 감안한다면 일본이나 우리나라와 같이 주 6일제 교육과정을 축소하거나 수정하는 운영방식은 임시방편일 뿐이며 주 5일 수업제에서 추구하는 교육적 요소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할 것이다.

셋째, 휴업일에 학생들이 자신의 여가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사회교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 중앙정부의 관련 행정부처, 지방 자치단체들의 행 ·재정적 지원이 아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인들 간의 협력체제 구축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었다.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시설부족은 감안해야 하겠지만 사회교육시설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을 학교 밖으로 보내는 것은 아동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줄뿐이다.

넷째, 주 5일 수업제 운영은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협조체제가 오랜 시간에 걸쳐 정착되어 있는 경우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가 주도하는 공교육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절실한 문제이다. 학교와 학부모, 지역주민의 협조체제의 구축이 지역 상황에 따른 문제점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5. 주 5일 수업제 시범학교 운영사례

가. 주 5일 수업제 도입의 근거

우리나라의 학교 주 5일 수업제는 1995년 12월 교육부 교육개혁추진기획단에서 발행한 “우리학교, 달라져야 합니다”의 문제제기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당시 수업운영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1) 주당 수업 시수를 6일로 나누어 운영하던 것을 5일로 나누어 운영한다.

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나) 하루 1시간 가량 늘어나는 수업시간을 학교 형편에 따라 요일별로 조정한다.

다) 평일의 일과시간이 많이 늘지 않도록 학교행사를 조정한다.

라) 수업이 없는 날 학교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실시해 주기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있으면 외부강사를 유급으로 고용하여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 정규교과 수업을 5일간 실시하고 특별활동을 주1회(혹은 월2회나 월1회) 하루동안 실시하는 방법을 이용한다.[38]

나. 주 5일 수업제의 법적 근거

1)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1998. 2. 24)에서는 주 5일 수업제 시행 근거를 조항을 다음과 같이 마련해 두고 있다.[39]

---

38) 교육부, 전게서, p.10.

제45조(수업일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를 제외한다) : 매 학년 220일 이상.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 150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48조(수업운영 방법 등)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을 인정할 수 있다.

2)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주 5일 수업제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 · 운영과 수업일수 확보를 위한 근거를 다음과 같이 마련해 주고 있다.[40]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교육과정의 연구를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과정의 기준과 다르게 학교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학교 급별 지침 (가)-①항)

교과 중에서 필요한 경우 주당 평균 3시간 이상의 수업시간 수가 배당된 교과는 1시간 이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학생의 요구, 학교의 필요 및 시 ·도의 지침에 따라 창의적 교육활동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축된 교과의 학습활동과 관련되는 직접적인 체험활동 (실험, 관찰, 조사, 수집, 노작, 토론, 견학 등)으로 통합 운영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1995년 경남 마산시 해운초등학교와 전남 장성의 사창초등학교가 교육부 지정 교육과정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주5일제를 실시하

39) 교육법전편찬회, 교육법전(서울, 교학사, 2003), p.28.
40) 교육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Ⅰ) -총론, 재량활동-, (1998), pp.113-143.

였으며, 이 외에도 1995학년도에 강원도 노암초등학교, 월학초등학교, 1996학년도에 서울 중원초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부속초등학교, 경기 교문초등학교, 대구 금포초등학교, 전남 사창초등학교 등에서 운영되었고. 1999. 9. 1부터 2001. 2. 28까지 부산 안락초등학교, 연서초등학교 등에서 각 시도 교육청별로 시범학교 또는 연구학교를 운영되었다.[41] 2003학년도에는 주 5일 수업제 관련 연구 시범학교가 교육부 지정 교육과정 연구학교 4개교, 학교모형 연구학교 10개교, 시·도교육청 지정 주 5일 수업제 연구학교가 58개교, 전국적으로 72개교가 연구학교로 운영중이다.[42]

현재까지 시범학교 또는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도출된 연구 보고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Ⅱ-1> 주 5일 수업제 시범학교 운영 내용

학교명	연구주제	주 5일 수업운영환경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체제 및 협력관계
월학초 (강원인제) 1995.3-1996.2	·소규모 학교의 「책가방 없는 날 ·주5일 수업제 방안」	·주5일수업-월1회재택 학습일 ·수업일수-연간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시간 배당 주수 차 이용	·6일제수업 (매주1회 책가장 없는 날) ·소규모「책가방 없는 날」운영 프로그램 구안·적용	·재택 프로그램 구안·적용
노암초 (강릉) 1995.3-1996.2	·책가방 없는 날 및 주5일제 수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주5일수업-월1회 가정학습일 ·수업일수-220일	·주1회 책가방 없는 날, 월1회 가정학습일프로그램 개발	·가정활동 주제 제시

41) 권석광, 「학교 주 5일제 운영을 위한 선행조건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2), p.16.
42) 교육인적자원부, 전게서, p.8.

<표 Ⅱ-1> 계속

학교명	연구주제	주5일 수업운영환경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체제 및 협력관계
사창초 (전남장성) 1996.3-1998.2	·자기주도학습력 신장을 위한 주5일수업학교교육과정편성·운영	·주5일수업-월1-2회 ·수업일수-220일 확보를 위해 방학 단축	6일제수업 ·창의적인 학교교육과정편성 ·다양한 학교교육과정 운영	·효율적인 학교여건 조성
이화여대부속초 (서울) 1996.3-1998.2	·자율성 함양을 위한 주5일제 수업	·주5일수업-월4회 ·수업시수-재량시간과 특별활동시간 조정	6일제 수업 ·학교교육과정 운영 시수 재조정	·자율 등교 학생을 위한 다양한 토요 프로그램 개발·적용
해운초 (마산) 1996.3-1998.2	·주5일제 대비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주5일수업-월1-2회 ·수업일수-방학조정	6일제수업 ·학교 수업 운영과 학습 활동의 내용·방법 및 조직의 조정	·학교·가정·지역사회의 지원체제 구축
안락초 (부산) 1999.9-2001.2	·주5일제 수업 운영을 통한 자기 학습력 신장	·주5일수업-월2회(토요일,휴업일-가정학습) ·학교행사, 특별,재량시간 해당영역 시수로 인정	6일제수업 (5일 교과수업+1일 특별프로그램) ·자기학습력 신장학습 활동 프로그램 구안·적용	·주5일제 수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강구
연서초 (부산) 1999.9-2001.2	·주5일제 수업 시행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의 시수로 학교 프로그램 운영	6일제수업 (5일 교과수업+1일 학교프로그램)	·학교·가정·지역사회의 지원체계 구축

자료 : 정광희 외 3인, 학교 주5일제 대비 휴업일 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1), pp.51-52.

다음 표는 2001-2002년에 연구학교 보고서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표 Ⅱ-2> 2001-2002년 연구학교 보고서 내용

학교명	연구주제	주5일 수업운영환경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체제 및 협력관계
경북 풍산초등 2001.3-2003.2	·주5일수업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학교교육과정편성·운영	·월1회(자유등교일) ·토요일활동해당영역수업시수인정 ·자유등교일현장체험 학교장허락으로 수업일수인정	·5일제수업+토요일-자유탐구일,동아리활동일,현장체험학습일 ·월2회토요휴업일을 위한 교육과정편성운영	·주5일수업제의 적응력을 높이기위한 학교주도형 휴업일운영
경북 모아초등 2001.3-2003.2	·주5일수업제 운영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월1회(휴업일) ·수업일수-210일	·5일제수업+토요일-전일제량 ·특활,통합학습일 ·주5일제 교육과정 재구성	·학교,가정,지역사회의 지원체제구축
울산 울산초등 2001.3-2003.2	·아동중심활동을 위한 주5일수업제 운영	·주5일수업-월 1회 (가정학습일) ·수업일수-220일 가정학습 수업일수인정	·5일제수업+토요일-체험학습,재량 ·특별전일제 ·주5일수업제효율적 운영을하기 위해 교육과정 탄력적운영	·학교,가정,지역사회여건조성
충북 옥산초등 2001.3-2003.2	·가정,학교,지역사회의 협력체제로 통한 주5일수업제 운영	·주5일수업-월2회(가정학습일) ·체험활동과 주제탐구활동은 수업일수 인정	·주5일수업+토요일-전일재량,전일특활 ·토요일 전일제 재량활동 및 전일제 특별활동운영	·학교,가정,지역사회지원체제확립

<표 Ⅱ-2> 계속

학교명	연구주제	주5일 수업운영환경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체제 및 협력관계
강원 봉평초등 2001.3-2003.2	·다양한 체험활동중심의 주5일 수업제 교육과정	·주5일수업-월1회(재택학습) ·수업일수-212일	·5일수업+체험학습 ·주당 3시간이상교과토요일편성운영	·효율적인운영을 위한 환경조성

연구학교 또는 시범학교의 보고서들은 실제 운영면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통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보장, 주5일제 교육과정 편성 필요성 제기, 사회교육시설의 확대,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연계 필요성 등이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주 5일 수업제는 일주일에 6일 중 5일만을 학교에 등교하여 정규교과 수업을 하고, 나머지 1일은 가정에서의 다양한 체험으로 학교 학습을 심화 ·보충하는 학교 운영 방법으로써 그 논의는 교육내적인 요인과 교육외적인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에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와 같은 주변 상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적 요구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주 5일 수업제 운영 방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6. 선행 연구의 고찰

최근 주 5일 수업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주 5일 수업제에 대한 관한 연구물 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 연구의 결과를 보면 다음

과 같다.

유한구 등[43]은「주 5일제 수업에 대비한 교육과정 체제 구조개선 연구」 교육부 위탁 연구에서 주 5일 수업제 실시를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고 시행해야 하며, 주 5일 수업제에 걸 맞는 수업관과 학력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유연한 사고가 요청되며, 주 5일 수업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은 물론, 국가와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합의에 의한 지원체제의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정광희는 교육부 위탁 연구 「사회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학교 운영방안 연구-주 5일 수업제 도입과 실행방안」의 내용을 보면, 주 5일 수업제 개념규정 및 논의배경, 외국의 주 5일 수업제 사례의 시사점, 주 5일 수업제에 관한 의견 조사결과 분석, 한국의 토요일 수업 운영현황, 주 5일 수업제 도입 및 시행방안 예시안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 5일 수업제를 교육의 관점에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새로운 교육관과 학력관, 지식관을 재정립하는 노력과 함께 논의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 5일 수업제 논의는 교육과정 개정과 수업시수 단축 논의와 함께 행해져야 하며, 교육내용의 엄선과 교육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운영방법에 관해서는 전면적인 도입보다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도입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운영에 탄력화를 기하고 특히 지역과 단위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회 ·행정적인 대응면에서는 학부모의 의식전환을 도모하면서 교육참여권과 실천력을 확대해 나가야 하며, 지역사회의 교육적 역할 제고와 함께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사회교육 인프라 구축이 요망된다고 했다. 이 연구는 체계적인 주 5일 수업제

43) 유한구 ·조주연 ·김승호, 전게서, pp83-85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주 5일 수업제 전반적인 분야를 다루고 있어 주 5일 수업제 연구의 기초적인 자료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44]

서울특별시교육청[45]은 「주 5일 수업 조사연구보고서」에서 교육과정 재구성 방안과 기초학력을 충실히 확충하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하며, 학생 생활지도를 위하여 안전생활과 예절, 여가선용을 위한 건전놀이 보급 등 다양한 생활지도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토요 휴업일의 대체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과 가정에서 활동 곤란한 아동을 위한 학교에서의 활동 프로그램, 관련 안내자료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활동 외에도 주 5일 수업제의 성공을 위해서 가정과 지역사회의 이해와 지지 그리고 협조가 선결 조건이라고 했다.

이윤미 등[46]은 「주 5일 수업제 운영관련 사회적 인프라 구축방안 연구」에서는 사회적 인프라는 주 5일 수업제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 ·제도적 차원, 이념적 차원, 인적차원, 물적 ·재정적 차원, 시설 차원 등의 제반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다. 아무리 주 5일 수업제가 정당하고 필요하다고 해도 사회적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클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광희 등[47]은 「학교 주5일 수업제 대비 휴업일 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서 현행 자율적인 토요일 수업 운영을 주 5일 수업제의 직전 단계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의 탄력화와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학교

---

44) 정광희 ·이윤미 ·이명실, 전게서, pp.212-225.
45) 서울특별시 교육청, 전게서, pp.399-400.
46) 이윤미 ·구자억 ·정광희, 전게서, pp.151-159.
47) 정광희 외 3인, 학교 주 5일제 대비 휴업일 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2001), pp.182-191.

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화 및 탄력화 방안 마련과 주 5일 수업제에 대비하여 수업일수와 교육내용 감축 등 교육과정 조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한국 주 5일 수업제 연구회의「주 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방안」에서는 주 5일 수업제의 국내외 사례 소개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실제로 주 5일 수업제 연구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 이도인의 「학교 5일제 연구」는 주 5일 수업제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어 주 5일 수업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서울대학교 교육과정연구회의 「주 5일 수업제 수업에 대비한 교육과정 체제 구조개선 연구」에서는 주 5일 수업제 에 대비한 교육과정의 체제 및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주 5일 수업제가 발전해 가는 과정을 '책가방 없는 날' 운영이나 '체험학습의 날' 의 운영형태에서 '재택학습일'로 이행해 가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에 따른 교육과정의 체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김민호 등[48]은 「주 5일 수업제 운영 관련 지역수준 프로그램 개발 및 전담기구 설치 ·운영에 관한 연구」에서는 주 5일 수업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행정기관, 지역사회 및 단체, 학교수준 협의체로 구성된 주 5일 수업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지역 및 학교급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반화시킬 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고찰한 연구들을 보면 사회적 여건이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

48) 김민호외 3인, 주 5일 수업제 운영 관련 지역수준 프로그램 개발 및 전담기구 설치 ·운영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보고서, 교육인적자원부(2002), pp. 177-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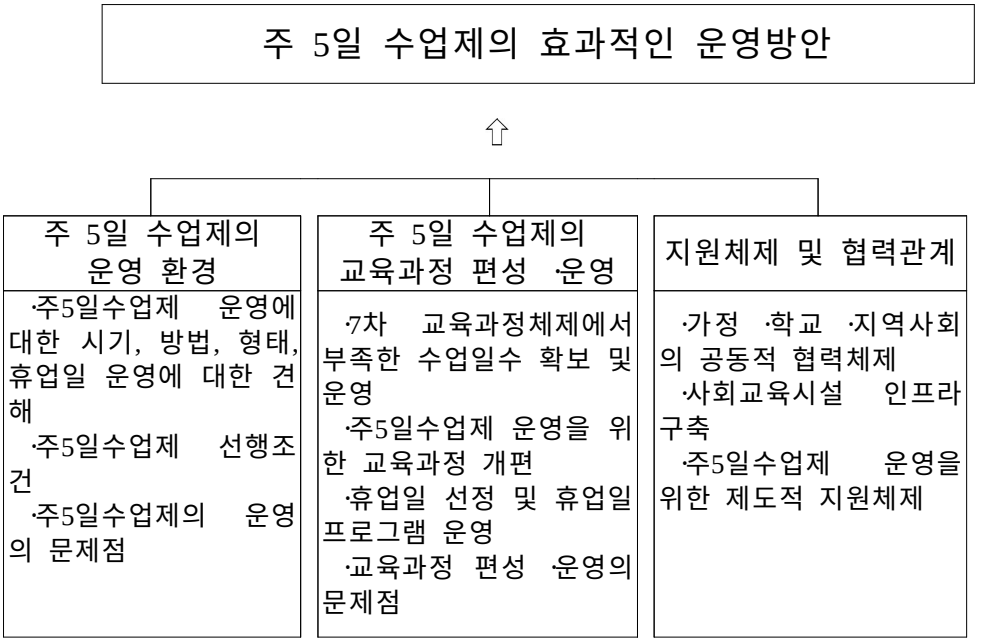
서의 주 5일 수업제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 제기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주 5일 수업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Ⅲ. 분석모형 및 조사설계

1. 분석모형 정립

본 연구에서는 주 5일 수업제의 개념, 논의 및 배경, 휴업일, 외국 사례, 국내 연구 시범학교 운영사례, 선행 연구물의 내용을 토대로 주 5일 수업제의 운영환경,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체제 협력관계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그림 Ⅲ-1>과 같이 모형화 하였다.

주 5일 수업제의 운영 환경에는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대한 인식, 선행조건, 운영의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주 5일 수업제가 어느 정도 성숙되어가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는 교육과정 개편, 수업일수확보, 휴업일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문제점 등을 통하여 현재의 교육과정으로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바람직한가를 분석하고, 지원체재 및 협력관계에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공동적 협력체제, 사회교육시설 인프라 구축, 제도적 지원체제 등에서 주 5일 수업제 시행에 지원되어야 할 공동적 교육 지원체제 및 협력관계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주 5일 수업제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림 Ⅲ-1> 주 5일 수업제의 연구를 위한 분석모형

2. 조사설계

가.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한 조사 대상은 영남지방(경상북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의 13개교 주 5일 수업제 연구시범학교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원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였다.

나. 조사도구 및 내용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 도구는 주 5일 수업제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질문지는 주 5일 수업제 연구시범학교 운영 보고서와 문헌 고찰 및 지도교수의 자문을 받아 내용을 작성하였다.

설문지의 문항 구성은 주 5일 수업제의 운영 환경,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체제 및 협력관계 등 3개 영역으로 나누고 총 2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내용 구성은 <표 III-1>와 같다.

<표 III-1> 주 5일 수업제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설문 내용

영 역	내 용	문 항 번호
1. 주 5일 수업 운영 환경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대한 인식	1
	주 5일 수업제 운영하고자하는 이유	2
	주 5일 수업제 도입 시기	3
	주 5일 수업제의 바람직한 휴업일 운영 형태	4
	주 5일 수업제 확대 운영을 위한 개선점	5
	주 5일 수업제 확대 운영을 위한 문제점	6
	주 5일 수업제 운영의 문제점	7
	주 5일 수업제 휴업일 학습활동 저해요인	8
	주 5일 수업제 나 홀로 아동에 대한 관리 대책	9
2. 주 5일 수업제의 교육과정 편성 · 운영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인식	10
	7차교육과정 체제에서 부족한 수업일수(시수) 확보	11
	주 5일 수업제을 위한 바람직한 수입일수	12
	주 5일 수업제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인식	13
	7차 교육과정으로 주5일 수업제을 할 때 교사 부담경감 방법	14
	효과적인 휴업일 선정	15
	토요일 활동 프로그램의 효과성	16
	학생들이 휴업일 프로그램의 애로점	17
	주 5일 수업제 시행에서 교사의 애로점	18
	주휴 2일로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대처 방안	19
3.지원체제 및 협력관계	가정 학교 지역사회 관계에 대한 인식	20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공동적 협력체제 구축 정도	21
	사회교육시설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22
	아동이 이용할 사회교육 시설 확보 정도	23
	아동이 필요한 사회교육 시설 활용 편의성	24
	필요한 인력자원	25
	필요한 인력자원 선발 기준	26
	제도적 지원 체제 우선 순위	27

다.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조사한 자료는 주 5일 수업제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영역별 인식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각 항목에 따라 성별, 경력별, 소재지역별, 학교규모별로 빈도분석과 백분율 분석방법에 의해 처리하였다. 그리고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Chi-square test)으로 통계적 분석을 하였다. 유의수준은 α=.01, α=.05, α=.001 수준에서 검증하였고, 회수된 자료는 SPSSWIN 10.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Ⅳ. 결과 분석 및 논의

1.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에서는 영남지방(경상북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의 주 5일 수업제 연구시범학교 13개교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사 26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된 질문지는 217부(83.5%)이며, 그 중 불성실한 질문지 11부를 제외하고 206부를 최종적인 연구 자료로 삼았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및 분포 상황은 <표 Ⅳ-1>과 같다.

<표 Ⅳ-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전 체	성 별		경 력			소재지		학교규모	
		남	여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시 군 지역	광역시	30학급 미만	30학급 이상
응답자수(명)	206	53	153	60	74	72	92	114	88	118
백분율(%)	100.0	25.7	74.2	29.1	35.9	35.0	44.7	55.3	42.7	57.3

전체응답자 206명 중 성별로는 남 53명(25.7%), 여 153명(74.2%)이며, 경력별로는 10년 미만이 60명(29.1%),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74명(35.9%), 20년 이상은 72명(35.0%)이다. 또 소재지별로는 시·군지역이 92명(44.7%), 광역시 이상이 114명(55.3%)이고, 학교규모별로는 30학급

미만이 88명(42.7%), 30학급 이상이 118명(57.3%)이다.

2. 분석결과

가. 주 5일 수업제의 운영 환경에 대한 분석

1)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대한 초등교원들의 인식(<표Ⅳ-2> 참조)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대해서 초등교원 대부분이 찬성(86.9%)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찬성한다' 라고 응답한 교사가 65.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찬성한다'에 22.3%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대한다'는 3.9%, '매우 반대한다'는 2.4%로 미미하게 반응하였다.

<표 Ⅳ-2>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대한 초등교원들의 인식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
전 체		5(2,4)	8(3.9)	14(6.8)	133(65.6)	46(22.3)	206(100.0)
성별	남	2(3.8)	4(7.5)	2(3.8)	34(64.2)	11(20.8)	53(100.0)
	여	3(2.0)	4(2.6)	12(7.8)	99(64.7)	35(22.9)	153(100.0)
χ^2=4.040 df=4 p=.401							
경력	10년미만	3(4.9)	2(3.3)	4(6.6)	39(63.9)	13(21.3)	61(100.0)
	10년이상20년미만	1(1.4)	1(1.4)	7(9.6)	46(63.0)	18(24.9)	73(100.0)
	20년이상	1(1.4)	5(6.9)	3(4.2)	48(63.0)	15(20.8)	72(100.0)
χ^2= 7.131 df= 8 p=.523							
소재지역	시군지역	1(1.1)	3(3.3)	9(9.9)	53(58.2)	25(27.5)	91(100.0)
	광역시이상	4(3.5)	5(4.3)	5(4.3)	80(69.6)	21(18.3)	115(100.0)
χ^2= 6.565 df= 4 p=.161							
학교규모	30학급이상	2(2.4)	3(3.5)	7(8.1)	53(62.4)	21(24.7)	86(100.0)
	30학급미만	3(2.5)	5(4.2)	7(5.9)	80(67.2)	25(20.8)	120(100.0)
χ^2=.943 df= 4 p=.918							

*p<.05 **p<.01 ***p<.001

주) ① 매우 반대, ② 반대, ③ 중립, ④ 찬성, ⑤ 매우 찬성

성별, 경력, 소재지역, 학교규모별로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주 5일 수업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표 Ⅳ-3> 참조)

주 5일 수업제의 운영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한 교원들의 반응은 '주 5일 근무제와 같은 주변 상황의 변화'에 39.8%로 교육 외적인 요인으로 이해하는 교원들이 가장 많았고, '아동들의 체험활동이나 개별 학습 시간의 확대'에 30.1%, '취미나 특기활동 등으로 자주적인 학습활동 기회 제공' 에 11.7%,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역할 회복'에 9.7%로 나타났다.

<표 Ⅳ-3> 주 5일 수업제을 운영하고자 하는 이유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
전 체		81(39.8)	18(8.7)	62(30.1)	20(9.7)	24(11.7)	206(100,0)
성별	남	21(39.6)	6(11.3)	11(20.8)	6(11.3)	9(17.0)	53(100.0)
	여	61(39.9)	12(7.8)	51(33.3)	14(9.2)	15(9.8)	153(100.0)
χ^2=4.546 df=4 p=.337							
경력	10년미만	24(39.3)	8(13.1)	17(27.9)	4(9.2)	8(13.1)	61(100.0)
	10년이상20년미만	33(45.2)	3(4.1)	26(35.6)	8(11.0)	3(4.1)	73(100.0)
	20년이상	25(34.7)	7(9.7)	19(26.4)	8(11.1)	13(18.1)	72(100.0)
χ^2=12.479 df=8 p=.131							
소재 지역	시도지역	34(37.4)	13(14.3)	22(24.1)	11912.1)	11(12.1)	91(100.0)
	광역시이상	48(41.7)	5(4.3)	40(34.8)	9(7.8)	13(11.3)	115(100.0)
χ^2=8.862 df=4 p=.065							
학교 규모	30학급이상	28(32.6)	7(8.1)	26(30.2)	10(11.6)	15(17.4)	86(100.0)
	30학급미만	54(45.0)	11(9.2)	36(30.0	10(8.3)	9(7.5)	120(100.0)
χ^2=6.820 df=4 p=.146							

*p<.05 **p<.01 ***p<.001

주) ① 주 5일 근무제와 같은 주변 상황의 변화, ② 경제력 향상에 따른 삶의 여유 확보, ③ 아동의 체험활동이나 개별 학습시간의 확대, ④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역할 회복, ⑤ 취미나 특기활동 등으로 자주적인 학습활동 기회 제공, ⑥ 기타

성별, 경력, 소재지역, 학교규모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완전 주 5일 수업제 도입하는 시기에 대한 의견(<표 Ⅳ-4> 참조)

완전 주 5일 수업제를 도입하는 시기에 대한 의견은 '연구 ·실험단계가 끝나는 2004년이 적당하다'가 36.9%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이고, 다음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한 후 2006년이 적당하다'가 33.5%, 지역이나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한다가 18.9%로 나타났다.

<표 Ⅳ-4> 완전 주 5일 수업제 도입하는 시기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계
전 체		76(36.9)	69(33.5)	6(2.9)	12(5.8)	39(18.9)	4(1.9)	206(100.0)
성별	남	22(41.5)	18(34.0)	3(5.7)	3(5.7)	7(13.2)	.	53(100.0)
	여	54(35.3)	51(33.3)	3(2.0)	9(5.9)	32(20.9)	4(2.6)	153(100.0)
χ^2=4.891 df=5 p=.429								
경력	10년미만	20(32.8)	26(42.6)	.	4(6.6)	10(16.4)	1(1.6)	61(100.0)
	10년이상20년미만	24(32.9)	25(34.2)	2(2.7)	4(5.5)	15(20.5)	3(4.1)	73(100.0)
	20년이상	32(44.4)	18(25.0)	4(5.6)	4(5.6)	14(19.4)	.	72(100.0)
χ^2=11.895 df=10 p=.292								
소재지역	시군지역	39(42.9)	28(30.8)	5(5.5)	5(5.5)	10(11.0)	4(4.4)	91(100.0)
	광역시이상	37(32.2)	41(35.7)	1(0.9)	7(6.1)	29(25.2)	.	115(100.0)
χ^2=16.182 df=5 p=.006**								
학교규모	30학급이상	26(30.2)	35(40.7)	4(4.7)	8(9.3)	13(15.1)	.	86(100.0)
	30학급미만	50(41.7)	34(28.3)	2(1.7)	4(3.3)	26(21.7)	4(3.3)	120(100.0)
χ^2=12.660 df=5 p=.027*								

*p<.05 **p<.01 ***p<.001

주) ① 연구 ·실험단계가 끝나는 2004년이 적당하다. ② 단계적으로 실시한 후 2006년이 적당하다. ③ 휴업일을 월 1회씩 연차적으로 늘려 2008년이 적당하다.④ 주 5일 근무제가 완전 실시되는 2010년이 적당하다. ⑤ 지역이나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⑥ 기타

소재지역(p<.01)과 학교규모(p<.05)별에서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지역에서 시군지역 집단은 '연

구 ·실험단계가 끝나는 2004년이 적당하다(42.9%)', '단계적으로 실시한 후 2006년이 적당하다(30.8%)' 순이고, 광역시 이상에서는 '단계적으로 실시한 후 2006년이 적당하다(35.7%)', '연구 ·실험단계가 끝나는 2004년이 적당하다(32.2%)'로 차이를 보이고, 학교규모에서는 30학급 이상은 '2006년이 적당하다(40.7%)', '2004년이 적당하다(30.2%)' 순인데 30학급 미만에서는 '2004년이 적당하다(41.7.5%)', '2006년이 적당하다(28.3%)'순으로 차이가 있다. 시군지역과 30학급 미만에서는 2004년이 적당하다고 반응한 반면 광역시 이상과 30학급 이상에서는 2006년이 적당하다고 반응하여 대조를 이루고, '지역이나 학교여건에 따라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에서 시군지역보다 광역시가 아주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성별, 경력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주 5일 수업제에서 바람직한 휴업일 운영 형태(<표 Ⅳ-5> 참조)

주 5일 수업제를 실험 운영해 본 결과 바람직한 휴업일 운영에 대한 의견에서는 '현재 일요일과 같이 자유롭게 보내게 한다'에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가정과 지역사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한다'에 36.4%, '체험학습과제 및 심화 보충학습 과제를 제시한다'에 10.2%로 와 같이 나타났다.

성별, 경력, 소재지역, 학교규모별 집단 간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응답했다.

<표 Ⅳ-5> 주 5일 수업제에서 바람직한 휴업일 운영 형태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
전 체		93(45.1)	21(10.2)	16(7.8)	75(36.4)	1(0.5)	206(100.0)
성별	남	28(52.8)	4(7.5)	5(9.4)	16(30.2)	.	53(100.0)
	여	65(42.5)	17(11.1)	11(7.2)	59(38.9)	1(0.7)	153(100.0)
χ^2=2.784 df=4 p=.595							
경력	10년미만	28(45.9)	6(9.8)	7(11.5)	20(32.9)	.	61(100.0)
	10년이상20년미만	28(38.4)	6(8.2)	7(9.6)	32(43.8)	.	73(100.0)
	20년이상	37(51.4)	9(12.5)	2(2.8)	23(31.9)	1(1.4)	72(100.0)
χ^2=9.318 df=8 p=.316							
소재 지역	시군지역	39(42.9)	7(7.7)	6(6.6)	38(41.8)	1(1.1)	91(100.0)
	광역시이상	54(47.0)	14(12.2)	10(8.7)	37(32.2)	.	115(100.0)
χ^2=4.025 df=4 p=.403							
학교 규모	30학급이상	39(45.3)	8(9.3)	3(3.5)	35(40.7)	1(1.2)	80(100.0)
	30학급미만	54(45.0)	13(10.8)	13(10.8)	40(33.3)	.	120(100.0)
χ^2=5.738 df=4 p=.220							

*p<.05 **p<.01 ***p<.001

주) ① 현재 일요일과 같이 자유롭게 보내게 한다. ② 체험학습과제 및 교과 심화 ·보충 학습 과제를 제시한다. ③ 자유등교 일처럼 학교에서 특기 ·적성, 체험학습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④ 가정과 지역사회 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한다. ⑤ 기타

5) 주 5일 수업제의 확대운영을 위하여 개선할 점(<표 Ⅳ-6> 참조)

주 5일 수업제의 확대 운영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한 의견은 '교육과정의 구성 및 편제 개선'에 56.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교육시설의 확충'에 28.2%, '제도적 지원장치 마련'에 10.2%로 와 같이 나타났다.

소재지역(p<.05)에서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과정의 구성 및 편재 개선'에서 광역시 이상(49.6%)보다 시군지역(65.9%)이 더 높은 반응을 보이고,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교육시설의 확충'은 시군지역(20.9%)보다 광역시 이상(33.9%)지역이 더 높은 반응을 보였다. 성별, 경력, 학교규모별 집단 간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응답했다.

<표 Ⅳ-6> 주 5일 수업제의 확대 운영을 위한 개선점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계
전 체		117(56.8)	58(28.2)	21(10.2)	10(4.9)	206(100.0)
성별	남	35(66.0)	14(26.4)	3(5.7)	1(1.9)	53(100.0)
	여	82(53,6)	44 28.8)	18(11.8)	9(5.9)	153(100.0)
χ^2=3,883			df=3	p=.274		
경력	10년미만	32(52.5)	19(31.1)	7(11.5)	3(4.9)	61(100.0)
	10년이상20년미만	45(61.6)	18(24.7)	7(9.6)	4(4.1)	73(100.0)
	20년이상	40(55.6)	21(29.2)	7(9.7)	4(5.6)	72(100.0)
χ^2=1.358			df=6	p=.968		
소재 지역	시군지역	60(65.9)	19(20.9)	10(11.0)	2(2.2)	91(100.0)
	광역시이상	57(49.6)	39(33.9)	11(9.6)	8(7.0)	115(100.0)
χ^2=7.933			df=3	p=.047*		
학교 규모	30학급이상	51(59.3)	22(25.6)	8(9.3)	5(5.8)	86(100.0)
	30학급미만	66(55.0)	36(30.0)	13(10.8)	5(4.2)	120(100.0)
χ^2=.906			df=3	p=.824		

*p<.05 **p<.01 ***p<.001

주) ① 교육과정 구성 및 편제 개선. ②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사회교육 시설의 확충. ③ 제도적 지원 장치 마련. ④ 주 5일 수업제에 대한 사회인식의 전환. ⑤ 기타.

6) 주 5일 수업제 확대 시행에 장애가 되는 것(<표 Ⅳ-7> 참조)

주 5일 수업제 확대 시행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으로는 '현재의 과다한 교육내용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교사와 학생에게 부담을 증대하는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에 5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주 5일 근무제 부분 실시로 수용태세가 미흡하다'와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교육의 공백화를 초래할 수 있다'에 각각 18.9%을 나타내고 있다.

소재지역(p<.05)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군지역에서는 '현재의 과다한 교육내용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교사와 학생에게 부담을 증대하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58.2%)', '학생들이 건전한 여가 문화형성을 위한 사회교육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

다(15.4%)' 순인데, 광역시 이상에서는 '현재의 과다한 교육내용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교사와 학생에게 부담을 증대하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44.3%)',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교육의 공백화를 초래할 수 있다(24.3%)' 순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성별, 경력, 학교규모별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7> 주 5일 수업제 시행에 장애가 되는 것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계
전 체		39(18.9)	39(18.9)	104(50.5)	24(11.7)	206(100.0)
성별	남	10(18.9)	10(18.9)	28(52.8)	5(9.4)	53(100.0)
	여	29(19.0)	29(19.0)	76(49.7)	19(12.4)	153(100.0)
		χ^2=.379	df=3	p=.945		
경력	10년미만	8(13.1)	14(23.0)	34(55,7)	5(8.2)	61(100.0)
	10년이상20년미만	17(23.3)	11(15.1)	37(50.7)	8(11.0)	73(100.0)
	20년이상	14(19.4)	14(19.4)	33(45.8)	11(15.3)	72(100.0)
		χ^2=5.048	df=6	p=.538		
소재 지역	시군지역	13(14.3)	11(12.1)	53(58.2)	14(15.4)	91(100.0)
	광역시이상	26(22.6)	28(24.3)	51(44.3)	10(8.7)	115(100.0)
		χ^2=9.785	df=3	p=.020*		
학교 규모	30학급이상	19(22,1)	14(16.3)	41(44.3)	12(14.0)	86(100.0)
	30학급미만	20(16.7)	25(20.8)	63(52.5)	12(10.0)	120(100.0)
		χ^2=2.231	df=3	p=.526		

*p<.05 **p<.01 ***p<.001

주) ① 주 5일 근무제 부분 실시로 수용태세가 미흡하다. ②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교육의 공백화를 초래할 수 있다. ③ 현재의 과다한 교육내용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교사와 학생에게 부담을 증대하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④ 학생들이 건전한 여가 문화형성을 위한 사회교육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⑤ 기타

8) 주 5일 수업제 운영의 문제점(<표 Ⅳ-8> 참조)

주 5일 수업제 운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으로는 '맞벌이 부부 자녀의 관리'가 6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학부모 부담 가

중'과 '사교육비 증가'가 각각 10.7%, '학생들의 학력수준 저하'가 6.8%로 나타났다.

성별($p<.05$)에서 '남', '여'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에서는 '맞벌이 부부 자녀관리'에 54.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학부모 부담 가중', '학생들의 학력저하'에 각각 15.1%로 나타난 반면 여자에서는 '맞벌이 부부 자녀관리'에 74.5%로 남자 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사교육비 증가'(9.8%), '학부모 부담 가중'(9.2%)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 집단보다 여자 집단에서 자녀관리와 사교육비 증가에 더 부담을 느끼고 있다. 경력, 소재지역, 학교규모별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8> 주 5일 수업제 운영의 문제점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
전 체		22(10.7)	143(69.4)	22(10.7)	14(6.8)	5(2.4)	206(100.0)
성별	남	8(15.1)	29(54.7)	7(13.2)	8(15.1)	1(1.9)	53(100.0)
	여	14((9.2)	114(74.5)	15(9.8)	6(3.9)	4(2.6)	153(100.0)
χ^2=11.267 df=4 p=.024*							
경력	10년미만	6(9.8)	47(77.0)	3(4.9)	3(4.9)	2(3.3)	61(100.0)
	10년이상20년미만	10(13.7)	45(61.6)	13(17.8)	5(6.8)	.	73(100.0)
	20년이상	6(8.3)	51(70.8)	6(8.3)	6(8.3)	3(4.2)	72(100.0)
χ^2=11.363 df=8 p=.182							
소재 지역	시군지역	13(14.3)	55(60.4)	14(15.4)	8(8.8)	1(1.1)	91(100.0)
	광역시이상	9(7.8)	88(76.5)	8(7.0)	6(5.2)	4(3.5)	115(100.0)
χ^2=9.396 df=4 p=.052							
학교 규모	30학급이상	13(15.1)	51(59.3)	10(11.6)	8(9.3)	4(4.7)	86(100.0)
	30학급미만	9(7.5)	92(76.7)	12(10.0)	6(5.0)	1(0.8)	120(100.0)
χ^2=9.394 df=4 p=.052							

*p<.05 **p<.01 ***p<.001

주) ① 학부모 부다 가중. ② 맞벌이 부부 자녀 관리. ③ 사교육비 증가. ④ 학생들의 학력수준 저하. ⑤ 기타

9) 휴업일에 아동들의 학습활동을 저해하는 요인(<표 Ⅳ-9> 참조)

휴업일에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자녀와 함께 할

시간의 부족'이 47.7%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지역사회의 사회교육체제 미흡'이 39.8%, '부모의 관심 부족'이 12.6%이며, '경제적 요인(3.4%)', '자녀의 의지 부족(1.9)'은 미미한 반응으로 나타났다.

성별, 경력, 소재지역, 학교규모별로는 유의미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9> 휴업일에 아동들의 학습활동을 저해하는 요인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계
전 체		86(41.7)	7(3.4)	26(12.6)	4(1.9)	82(39.8)	.	206(100.0)
성별	남	28(52.8)	1(1.9)	4(7.5)	2(3.8)	18(34.0)	.	53(100.0)
	여	58(37.9)	6(3.9)	22(14.4)	2(1.3)	64(41.8)	1(0.7)	153(100.0)
χ^2=6.227 df=5 p=.285								
경력	10년미만	21(34.4)	3(4.9)	8(13.1)	2(3.3)	27(44.3)	.	61(100.0)
	10년이상20년미만	30(41.1)	2(2.7)	8(11.0)	1(1.4)	32(43.8)	.	73(100.0)
	20년이상	35(48.6)	2(4.8)	10(13.9)	1(1.4)	23(31.9)	1(1.4)	72(100.0)
χ^2=6.835 df=10 p=.741								
소재 지역	시군지역	39(42.9)	4(4.4)	10(11.0)	.	37(40.7)	1(1.1)	91(100.0)
	광역시이상	47(40.9)	3(2.6)	16(13.9)	4(3.5)	45(39.1)	.	115(100.0)
χ^2=5.238 df=5 p=.377								
학교 규모	30학급이상	36(41.9)	1(1.2)	12(14.0)	.	37(43.0)	.	86(100.0)
	30학급미만	50(41.7)	6(5.0)	14(11.7)	4(3.3)	45(37.5)	1(0.8)	120(100.0)
χ^2=6.436 df=5 p=.274								

*p<.05 **p<.01 ***p<.001

주) ①자녀와 함께 할 시간(여유)의 부족 ②경제적(금전적) 요인 ③부모의 관심 부족 ④자녀의 의지부족 ⑤지역사회의 사회교육 체제 미흡 ⑥기타

10) 나 홀로 아동에 대한 관리대책(<표 Ⅳ-10> 참조)

나 홀로 아동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안내'에 3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자원 봉사자를 활용한 특기 ·적성교육 강화'에 30.1%, '소집단(동아리)을 구성한 학습활동 유도'에 22.3%의 순이고, '수행평가 과제제시', '학습도우미 활용'은 미미한 반

응으로 나타났다.

학교규모별(p<.05)에서 '30학급미만'과 '30학급 이상'의 두 집단 간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30학급 미만'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안내'에 48.8%, '30학급 이상에서는 '자원 봉사자를 활용한 특기 ·적성교육 강화'에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학교규모에 따라 인식의 차가 있으며, 성별, 경력, 소재지역별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0>나 홀로 아동에 대한 관리대책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
전 체		76(36.9)	15(7.3)	62(30.1)	46(22.3)	7(3.4)	206(100.0)
성별	남	22(41.5)	5(9.4)	16(30.2)	9(17.0)	1(1.9)	53(100.0)
	여	54(35.4)	10(6.5)	46(30.1)	37(24.2)	6(3.9)	153(100.0)
χ^2=2.260 df=4 p=.688							
경력	10년미만	17(27.9)	7(11.5)	22(36.1)	14(23.0)	1(1.6)	61(100.0)
	10년이상20년미만	9(39.7)	3(4.1)	18(24.7)	18(24.7)	5(6.8)	73(100.0)
	20년이상	30(41.7)	5(6.9)	22(30.6)	14(19.4)	1(1.4)	72(100.0)
χ^2= 10.314 df=8 p=.244							
소재지역	시군지역	38(41.8)	4(4.4)	26(28.6)	18(19.8)	5(5.5)	91(100.0)
	광역시이상	38(33.0)	11(9.6)	36(31.3)	28(24.3)	2(1.7)	115(100.0)
χ^2=5.619 df=4 p=.229							
학교규모	30학급이상	42(48.8)	3(3.5)	21(24.4)	17(1.8)	3(3.5)	86(100.0)
	30학급미만	34(28.3)	12(10.0)	41(34.2)	29(24.2)	4(3.3)	120(100.0)
χ^2=10.645 df=4 p=.031*							

*p<.05 **p<.01 ***p<.001

주>①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안내 ②통합 교과적 수행평가 과제제시 ③자원 봉사자를 활용한 특기 ·적성교육 강화 ④소집단(동아리)을 구성한 협동학습 활동 유도 ⑤학습도우미 활용 ⑥기타

나. 주 5일 수업제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분석

1) 주 5일 수업제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운영(<표 Ⅳ-11> 참조)

주 5일 수업제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는 '7차 교육과정을 주 5일 수업에 맞게 축소하여 운영한다'에

76.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지역 및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단위학교별로 계획한다’에 11.7%,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한다’에 9.7%, ‘현재 7차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한다’에 2.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소재지역, 학교규모별 각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별($p<.05$)로는 남녀 집단에서 ‘7차 교육과정을 주 5일 수업에 맞게 축소하여 운영한다’에 남(73.6%), 여(77.1)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남자 집단에서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한다’에 18.9%, 여자 집단에서는 ‘지역 및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단위학교별로 계획한다’에 13.1%로 나타나 대조를 이루고 있다. 소재지역별($p<.05$)에서도 ‘7차 교육과정을 주 5일 수업에 맞게 축소하여 운영한다’에 시도지역에 75.8%, 광역시 이상 지역에 76.5.%이고, 다음으로 시도지역에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한다’에 15.4%인데 광역시 이상에서는 ‘지역 및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단위학교별로 계획한다’에 16.5%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교규모별($p<.05$)에서는 ‘7차 교육과정을 주 5일 수업에 맞게 축소하여 운영한다’에 30학급 이상에 68.9%, 30학급 미만에 81.7.%이고, 다음으로는 30학급 미만에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한다’에 17.4%인데 30학급 이상에서는 ‘지역 및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단위학교별로 계획한다’에 11.7% 순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경력별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Ⅳ-11>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계
전 체		5(2.4)	157(76.2)	24(11.7)	20(9.7)	206(100.0)
성별	남	.	39(73.6)	4(7.5)	10(18.9)	53(100.0)
	여	5(3.3)	118(77.1)	20(13.1)	10(6.5)	153(100.0)
		χ^2=8.994	df=3	p=.029*		
경력	10년미만	.	46(75.4)	11(18.0)	4(6.6)	61(100.0)
	10년이상20년미만	3(4.1)	58(79.5)	4(5.5)	8(11.0)	73(100.0)
	20년이상	2(2.8)	53(73.6)	9(12.5)	8(11.1)	72(100.0)
		χ^2=7.989	df=6	p=.239		
소재 지역	시군지역	3(3.3)	69(75.8)	5(5.5)	14(15.4)	91(100.0)
	광역시이상	2(1.7)	88(76.5)	19(16.5)	6(5.2)	115(100.0)
		χ^2=11.222	df=3	p=.011*		
학교 규모	30학급이상	2(2.3)	59(68.9)	10(11.6)	15(17.4)	86(100.0)
	30학급미만	3(2.5)	98(81.7)	14(11.7)	5(4.2)	120(100.0)
		χ^2=10.221	df=3	p=.017*		

*p<.05 **p<.01 ***p<.001

주>①현재 7차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한다 ②7차 교육과정을 주 5일에 맞게 축소하여 운영한다 ③지역 및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단위 학교별로 계획한다 ④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⑤기타

2) 부족한 수업일수 확보에 대한 견해(<표 Ⅳ-12> 참조)

주 5일 수업제 시행에서 현행 7차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부족한 수업일수 확보를 위해 바람직한 운영에 대한 질문에 '관계법령을 개정한다'에 49.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교육과정을 개편한다'에 45.6%, '휴업일의 교과 시수를 평일에 1시간씩 더 편성하여 수업일수(수업시수)로 인정한다'에 2.9%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규모별(p<.05)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규모별에서 30학급 이상에서 수업일수 확보를 위해 '방학을 줄이는 것(3.3%)'과 '평일에 1시간씩 수업을 더하는 것(5.0%)'로 나타난 반면 30학급 미만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성별, 경력별, 소재지역별 각 집단 간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2> 부족한 수업일수 확보에 대한 견해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계
전 체		102(49.5)	94(45.6)	4(1.9)	6(2.9)	206(100.0)
성별	남	27(50.9)	25(47.2)	.	1(1.9)	53(100.0)
	여	75(49.0)	69(45.1)	4(2.6)	5(3.3)	153(100.0)
χ^2=1.710 df=3 p=.635						
경력	10년미만	32(52.5)	24(39.3)	2(3.3)	3(4.9)	61(100.0)
	10년이상20년미만	30(41.4)	40(54.8)	2(2.7)	1(1.4)	73(1000)
	20년이상	40(55.6)	30(41.7)	.	2(2.8)	72(100.0)
χ^2=7.444 df=6 p=.282						
소재 지역	시군지역	42(46.2)	47(51.6)	.	2(2.2)	91(100.0)
	광역시이상	60(52.1)	47(40.8)	4(3.5)	4(3.5)	115(100.0)
χ^2= 5.116 df=3 p=.163						
학교 규모	30학급이상	49(57.0)	37(43.0)	.	.	86(100.0)
	30학급미만	53(44.2)	57(47.5)	4(3.3)	6(5.0)	120(100.0)
χ^2=9.047 df=3 p=.029*						

*p<.05 **p<.01 ***p<.001

주) ① 관계 법령을 개정한다. ② 교육과정을 개편한다. ③ 수업일수 220일 확보하기 위해 방학을 줄인다. ④ 휴업일의 교과 시수를 평일에 1시간식 더 편성하여 수업일수(수업시수)로 인정한다. ⑤기타.

3) 주 5일 수업제 시행을 위해 적당한 수업일수(<표 Ⅳ-13> 참조)

주 5일 수업제 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한 수업일수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현행 220일에서 34주의 휴업일을 공제한 '186일'이 40.0%이고, 다음으로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을 감축한 '198일'에 38.0%, 외국의 경우와 같이 '180일'이 19.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경력, 소재지역, 학교규모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3> 수업일수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계
전 체		3(1.5)	78(38.0)	82(40.0)	40(19.5)	1(0.5)	1(0.5)	205(100.0)
성별	남	.	24(45.3)	16(30.2)	13(24.5)	.	.	53(100.0)
	여	3(2.0)	54(35.5)	66(43.0)	27(17.8)	1(0.7)	1(0.7)	152(100.0)
χ^2= 5.369 df=5 p=.373								
경력	10년미만	.	24(39.3)	25(41.0)	12(19.7)	.	.	61(100.0)
	10년이상20년미만	.	21(29.0)	33(45.8)	16(22.2)	1(1.4)	1(1.4)	72(100.0)
	20년이상	3(4.2)	33(45.8)	24(33.3)	12(16.7)	.	.	72(100.0)
χ^2=13.900 df=10 p=.178								
소재 지역	시군지역	.	36(39.6)	30(33.0)	23(25.3)	1(1.1)	1(1.1)	91(100.0)
	광역시이상	3(2.6)	42(36.8)	52(45.6)	17(14.9)	.	.	114(100.0)
χ^2=9.807 df=5 p=.081								
학교 규모	30학급이상	.	35(40.7)	31(36.0)	19(22.1)	1(1.2)	.	86(100.0)
	30학급미만	3(2.5)	43(36.1)	51(42.9)	21(17.6)	.	1(0.8)	119(100.0)
χ^2=5.632 df=5 p=.344								

*p<.05 **p<.01 ***p<.001

주) ①220일(현행) ② 198일(교육감의 승인으로 220일의1/10) ③ 186일9220-휴업일 34일) ④ 180일(외국의 경우) ⑤기타

4)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편한다면 고려해야할 점(<표 Ⅳ-14> 참조)

주 5일 수업제 운영을 위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편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점에 대한 견해는 '교육과정의 양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에 6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휴업일 활동과 연계된 교육과정의 내용으로 질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에 24.8%이고, '교과목의 수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에 10.7%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성별, 경력, 소재지역, 학교규모별로는 유의미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4>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편한다면 고려해야할 점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
전 체		22(10.7)	129(62.9)	51(24.8)	3(1.5)	1(0.5)	206(100.0)
성별	남	3(5.7)	37(69.8)	13(24.5)	.	.	53(100.0)
	여	19(12.4)	92(60.1)	38(24.8)	3(2.0)	1(0.7)	153(100.0)
χ^2=3.660 df=4 p=.454							
경력	10년미만	7(11.5)	41(67.2)	13(21.3)	.	.	61(100.0)
	10년이상20년미만	10(13.7)	41(56.2)	20(27.4)	1(1.4)	1(1.4)	73(100.0)
	20년이상	5(6.9)	47(65.3)	18(25.0)	2(2.8)	.	72(100.0)
χ^2=6.449 df=8 p=.597							
소재 지역	시군지역	9(9.9)	58(63.7)	21(23.1)	2(2.2)	1(1.1)	91(100.0)
	광역시이상	13(11.3)	71(61.7)	30(26.1)	1(0.9)	.	115(100.0)
χ^2= 2.193 df=4 p=.700							
학교 규모	30학급이상	7(8.1)	53(61.6)	24(27.9)	1(1.2)	1(1.2)	86(100.0)
	30학급미만	15(12.5)	76(63.3)	27(22.5)	2(1.7)	.	120(100.0)
χ^2=2.989 df=4 p=.560							

*p<.05 **p<.01 ***p<.001

주)① 교과목의 수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 ② 교육과정의 양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 ③ 휴업일 활동과 연계된 교육과정의 내용으로 질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 ④ 교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교육과정을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다. ⑤기타

5) 평일수업 1시간씩 증가에 대한 수업부담 경감(<표 Ⅳ-15> 참조)

일부 연구 ·시범학교에서 현행 7차 교육과정으로 주 5일 수업을 실시한 결과 법정 수업시수 확보를 위해 평일에 1시간 정도 증가로 교사의 부담이 크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 방법에 대한 질문에서 '전담교사의 확대로 교사의 수업시수 감축'에 6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수업시수에 대한 수당지급'에 19.4%, '보조교사 채용으로 수업 및 업무부담 경감'에 7.3%, '급당 학생 수를 줄여 수업부담 경감'에 3.9%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15> 평일수업 1시간씩 증가에 대한 수업부담 경감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
전 체		132(64.1)	40(19.4)	15(7.3)	11(5.3)	8(3.9)	206(100.0)
성별	남	35(66.0)	11(20.8)	3(5.7)	3(5.7)	1(1.9)	53(100.0)
	여	97(63.4)	29(19.0)	12(7.8)	8(5.2)	7(4.6)	153(100.0)
χ^2=1.112 df=4 p=.892							
경력	10년미만	38(62.3)	14(23.0)	4(6.6)	4(6.6)	1(1.6)	61(100.0)
	10년이상20년미만	45(61.6)	12(16.4)	7(9.6)	5(6.8)	4(5.5)	73(100.0)
	20년이상	49(68.1)	14(19.4)	4(5.6)	2(2.8)	3(4.2)	72(100.0)
χ^2=4.524 df=8 p=.807							
소재지역	시군지역	65(71.4)	14(15.4)	6(6.6)	2(2.2)	4(4.4)	91(100.0)
	광역시이상	67(58.3)	26(22.6)	9(7.8)	9(7.8)	4(3.5)	115(100.0)
χ^2=5.970 df=4 p=.201							
학교규모	30학급이상	56(65.1)	12(14.0)	8(9.3)	3(3.5)	7(8.7)	86(100.0)
	30학급미만	76(63.3)	28(23.3)	7(5.8)	8(6.7)	1(0.8)	120(100.0)
χ^2=10.957 df=4 p=.027*							

*p<.05 **p<.01 ***p<.001

주) ① 전담교사 확대로 교사의 수업시수 감축 ② 수업시수에 따른 수당지급 ③ 보조교사(학습도우미) 채용으로 수업 및 업무부담 경감 ④ 급당 학생 수를 줄여 수업부담 경감 ⑤ 기타

학교규모별(p<.05) 30학급 미만과 30학급 이상의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교사 확대로 수업시수 감축'에는 30학급 미만과 30학급 이상과 비슷한 수준이나 '수업 시수에 따른 수당지급'은 30학급 미만 보다 30학급 이상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별, 경력, 소재지역별 각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응답했다.

6) 주 5일 수업제의 휴업일 선정(<표 Ⅳ-16> 참조)

주 5일 수업제에서 휴업일 선정은 어느 요일에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의 질문에 '토요일'이 8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에 11.7%, '수요일'이

3.4%. ‘월요일’이 2.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경력, 소재지역, 학교규모별은 각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비슷한 분포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토요일을 휴업일로 하는 것이 일요일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취미와 적성을 살려 줄 수 있는 체험학습을 시키는 것이 더 학습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표 Ⅳ-16> 주 5일 수업제의 휴업일 선정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계
전 체		5(2.4)	7(3.4)	170(82.5)	24(11.7)	206(100.0)
성별	남	1(1.9)	1(1.9)	46(86.8)	5(9.4)	53(100.0)
	여	4(2.6)	6(3.9)	124(81.0)	19(12.4)	153(100.0)
		χ^2=1.024	df=3	p=.795		
경력	10년미만	2(3.3)	2(3.3)	51(83.6)	6(9.8)	61(100.0)
	10년이상20년미만	1(1.4)	3(4.1)	62(84.9)	7(9.6)	73(100.0)
	20년이상	2(2.8)	2(2.8)	57(79.2)	11(15.3)	72(100.0)
		χ^2=2.158	df=6	p=.905		
소재지역	시군지역	.	3(3.3)	78(85.7)	10(11.0)	91(100.0)
	광역시이상	5(4.3)	4(3.5)	92(80.0)	14(12.2)	115(100.0)
		χ^2=4.224	df=3	p=.238		
학교규모	30학급이상	1(1.2)	2(2.3)	71(82.6)	12(14.0)	86(100.0)
	30학급미만	4(3.3)	5(4.2)	99(82.5)	12(10.0)	120(100.0)
		χ^2=2.144	df=3	p=.543		

*p<.05 **p<.01 ***p<.001

주) ① 월요일 ② 수요일 ③ 토요일 ④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 ⑤ 기타

7) 토요일 활동 프로그램운영으로 의 효과성(<표 Ⅳ-17> 참조)

완전 주 5일제 실시 전 단계로 전일 재량활동, 전일 특별활동, 통합학습일, 체험 학습일 등으로 토요일 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 것에 대한 질문에 ‘체험학습의 기회가 많아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향상되었다’에 5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여유 ·

휴식의 기회가 많아 전인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에 32.5%, '소질 및 특기 계발의 기회가 되었다'에 6.8%, '창의력 및 탐구력이 향상되었다'에 3.9%,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경력, 소재지역, 학교규모별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휴업일에 체험학습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서나 학교에서 다양하게 제공함으로 아동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신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Ⅳ-17> 주 5일 수업제의 토요일 활동 프로그램의 효과성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
전 체		8(3.9)	14(6.8)	67(32.5)	112(54.4)	5(2.4)	206(100.0)
성별	남	2(3.8)	5(9.4)	18(34.0)	27(5.09)	1(1.9)	53(100.0)
	여	6(3.9)	9(5.9)	49(32.0)	85(55.6)	4(2.6)	153(100.0)
χ^2=1.018 df=4 p=.907							
경력	10년미만	.	3(4.9)	22(36.1)	35(57.4)	1(1.6)	61(100.0)
	10년이상20년미만	3(4.1)	5(6.8)	28(38.4)	36(49.3)	1(1.4)	73(100.0)
	20년이상	5(6.9)	6(8.3)	17(23.6)	41(56.9)	3(4.2)	72(100.0)
χ^2=9.362 df=8 p=.313							
소재지역	시군지역	3(3.3)	8(8.8)	29(31.9)	49(53.8)	2(2.2)	91(100.0)
	광역시이상	5(4.3)	6(5.2)	38(33.0)	63(54.8)	3(2.6)	115(100.0)
χ^2=1.164 df=4 p=.884							
학교규모	30학급이상	3(3.5)	5(5.8)	23(26.7)	54(62.8)	1(1.2)	86(100.0)
	30학급미만	5(4.2)	9(7.5)	44(36.7)	58(48.3)	4(3.3)	120(100.0)
χ^2=4.684 df=4 p=.321							

*p<.05 **p<.01 ***p<.001

주) ① 창의력과 탐구력이 향상되었다. ② 소질 및 특기계발의 기회가 되었다.③ 여유 · 휴식의 기회가 많아 전인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④ 체험학습의 기회가 많아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향상되었다. ⑤ 기타

8) 학생들이 휴업일 프로그램 운영에 애로점(<표 Ⅳ-18> 참조)

주 5일 수업제의 휴업일에 재택학습 ,자유등교일, 체험학습일 등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학생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에 '가정에서 학부모들이 아동을 지도할 여건이 되어 있지 않다'에 4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사회여건이 미흡하여 외부기관의 프로그램 이용이 어렵다'에 37.4%, '학습 도우미 없이 아동 스스로 학습주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에 8.7%의 분포를 보였고, '안전문제 미흡(3.9%)'이나 '경제적인 부담(2.4%)'에는 미미하게 응답하였다.

<표 Ⅳ-18> 학생들이 휴업일 프로그램 운영에 애로점을 느끼는 것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
전 체		98(47.6)	77(37.4)	18(8.7)	5(2.4)	8(3.9)	206(100.0)
성별	남	32(60.4)	13(24.5)	5(9.4)	.	3(5.7)	53(100.0)
	여	66(43.1)	64(41.8)	13(8.5)	5(3.3)	5(3.3)	153(100.0)
χ^2=7.964 df=4 p=.093							
경력	10년미만	27(44.3)	25(41.0)	8(13.1)	.	1(1.6)	61(100.0)
	10년이상20년미만	35(47.9)	30(41.1)	1(1.4)	5(6.8)	2(2.7)	73(100.0)
	20년이상	36(50.0)	22(30.6)	9(12.5)	.	5(6.9)	72(100.0)
χ^2=20.533 df=8 p=.008**							
소재지역	시군지역	43(47.3)	35(38.5)	7(7.7)	3(3.3)	3(3.3)	91(100.0)
	광역시이상	55(47.8)	42(36.5)	11(9.6)	2(1.7)	5(4.3)	115(100.0)
χ^2=.911 df=4 p=.923							
학교규모	30학급이상	40(46.5)	33(38.4)	8(9.3)	1(1.2)	4(4.7)	86(100.0)
	30학급미만	58(48.3)	44(36.7)	10(8.3)	4(3.3)	4(3.3)	120(100.0)
χ^2=1.324 df=4 p=.857							

*p<.05 **p<.01 ***p<.001

주) ① 가정에서 학부모들이 아동들을 지도할 여건이 되어 있지 못하다.
② 사회여건이 미흡하여 외부기관의 프로그램 이용이 어렵다.
③ 학습도우미 없이 아동 스스로 학습주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④ 체험학습 활동 시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
⑤ 체험학습 활동 시에 따르는 안전문제가 미흡하다.

경력별(p<.01)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

정에서 학부모들이 아동을 지도할 여건이 되어있지 않다'(20년 이상 50.0%, 10년 이상 20년 미만 47.9%, 10년 미만 44.3%), '사회여건이 미흡하여 외부기관의 프로그램 이용이 어렵다'(10년 미만 41.1%, 10년 이상 20년 미만 41.0%, 20년 이상 30.6)로 비슷한 경향이나, '학습도우미 없이 아동 스스로 학습주제 해결이 어렵다'(10년 미만 13.1%, 20년 이상 12.5%, 10년 미만 20년 이상 1.45%)는 10년 미만의 경력자가 어려움을 느끼는 반면, '체험활동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층인 10이상 20년 미만만 경제적 부담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성별, 소재지, 학교규모별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 교육과정 운영에서 교사가 느끼는 애로점(<표 Ⅳ-19> 참조)

주 5일 수업제 의 교육과정 운영에서 교사가 느끼는 가장 큰 애로점에 대한 질문에서 '휴업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안내하는 것이 어려웠다'에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휴업일 사전 사후지도가 어려웠다'에 26.2%, '과다한 학습량을 지도하기가 어려웠다' 25.2%, '휴업일 생활지도와 안전지도가 어려웠다' 3.9%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경력, 소재지역, 학교규모별 각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9> 교육과정 운영에서 교사가 느끼는 애로점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
전 체		89(43.2)	52(25.2)	54(26.2)	8(3.9)	3(1.5)	206(100.0)
성별	남	30(56.6)	7(13.2)	14(26.4)	2(3.8)	.	53(100.0)
	여	59(38.6)	45(29.4)	40(26.1)	6(3.9)	3(2.0)	153(100.0)
χ^2=8.103 df=4 p=.088							
경력	10년미만	25(41.0)	16()26.2	17(27.9)	3(4.9)	.	61(100.0)
	10년이상20년미만	25(34.2)	22(30.1)	20(27.4)	4(5.5)	2(2.7)	73(100.0)
	20년이상	39(54.2)	14(19.4)	17(23.6)	1(1.4)	1(1.4)	72(100.0)
χ^2=8.909 df=8 p=.350							
소재 지역	시군지역	32(35.2)	28(30.8)	25(27.5)	4(4.4)	2(2.2)	91(100.0)
	광역시이상	57(49.6)	24(20.9)	29(25.2)	4(3.5)	1(0.9)	115(100.0)
χ^2=5.235 df=4 p=.264							
학교 규모	30학급이상	38(44.2)	21(24.4)	23(26.7)	3(3.5)	1(1.2)	86(100.0)
	30학급미만	51(42.5)	31(25.8)	31(25.8)	5(4.2)	2(1.7)	120(100.0)
χ^2=.235 df=4 p=.994							

*p<.05 **p<.01 ***p<.001

주) ①휴업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안내하는 것이 어려웠다. ②과다한 학습량을 지도하기가 어려웠다. ③휴업일 사전 ·사후지도가 어려웠다. ④휴업일 생활 및 안전지도가 어려웠다. ⑤기타

10) 주휴 2일로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대처 방안(<표 Ⅳ-20> 참조)

주휴 2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바람직한 대처 방안에 대한 질문에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지도에 충실한다' 에 4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수준별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한다'에 43.7%, '과제제시를 가정에 일임한다'에 5.8%, '기본학력 부진 학생을 휴업일에 개별지도 한다'에 2.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지도 충실(50.9%)', '수준별 교육 과정 충실히 이행(32.1%)', '기본 학력 부진 학생 휴일에 지도(7.5%)', '과제제시로 가정에 일임 (7.5%)' 순이나, 여자의 경우 '수준별 교육과정 충실의 이행(47.7%)', '기초학력부진 학생지도 충실(44.4%)', '과제제시를 가정에 일임

(5.2%)', '기본학력 부진 학생 휴업일에 개인지도(0.7%)' 순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루고 있다. 경력별, 소재지별, 학교규모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여자의 경우는 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 할 때, 남자의 경우 기초학력을 충실히 지도할 때 학력저하에 대처 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표 Ⅳ-20> 주휴 2일로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대처 방안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
전 체		95(46.1)	90(43.7)	5(2.4)	12(5.8)	4(1.9)	206(100.0)
성별	남	27(50.9)	17(32.1)	4(7.5)	4(7.5)	1(1.9)	53(100.0)
	여	68(44.4)	73(47.7)	1(0.7)	8(5.2)	3(2.0)	153(100.0)
χ^2=10.635 df=4 p=.031*							
경력	10년미만	40(65.6)	16(26.2)	1(1.6)	3(4.9)	1(1.6)	61(100.0)
	10년이상20년미만	27(37.0)	39(53.4)	1(1.4)	4(5.5)	2(2.7)	73(100.0)
	20년이상	28(38.9)	35(48.6)	3(4.2)	5(6.9)	1(1.4)	72(100.0)
χ^2=15.409 df=8 p=.052							
소재지역	시군지역	43(47.3)	36(39.6)	2(2.2)	8(8.8)	2(2.2)	91(100.0)
	광역시이상	52(45.2)	54(47.0)	3(2.6)	4(3.5)	2(1.7)	115(100.0)
χ^2=3.234 df=4 p=.519							
학교규모	30학급이상	42(48.8)	34(39.5)	2(2.3)	5(5.8)	3(3.5)	86(100.0)
	30학급미만	53(44.2)	56(46.7)	3(2.5)	7(5.8)	1(0.8)	120(100.0)
χ^2=2.645 df=4 p=.619							

*p<.05 **p<.01 ***p<.001

주)①기초학력 부진 학생지도에 충실한다. ②수준별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한다.
③기본 학력 부진 학생을 휴업일에 개별지도 한다. ④과제제시로 가정에 일임한다.
⑤기타

다. 지원체제 및 협력관계에 대한 분석

1) 가정 ·학교 ·지역사회 관계에 대한 인식(<표 Ⅳ-21> 참조)

주 5일 수업제 운영을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 관계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한 질문에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간에 교육

협력체제를 구축한다'에 6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학교(교육청) ·지역사회 기관 단체에서 휴업일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에 16.0%. '학교 밖 학생 학습활동은 가정과 지역사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에 13.6%, '가정 ·지역사회의 협조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에 4.9%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21> 가정 ·학교 ·지역사회 관계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계
전 체		135(65.5)	10(4.9)	28(13.6)	33(16.0)	206(100.0)
성별	남	29(54.7)	1(1.9)	9(17.0)	14(26.4)	53(100.0)
	여	106(69.3)	9(5.9)	19(12.4)	19(12.4)	153(100.0)
χ^2=7.986 df=3 p=.046*						
경력	10년미만	42(68.9)	2(3.3)	12(19.7)	5(8.2)	61(100.0)
	10년이상20년미만	49(67.1)	5(6.8)	8(11.0)	11(15.1)	73(100.0)
	20년이상	44(61.1)	3(4.2)	8(11.1)	17(23.6)	72(100.0)
χ^2=8.645 df=6 p=.195						
소재 지역	시군지역	61(67.0)	1(1.1)	11(12.1)	18(19.8)	91(100.0)
	광역시이상	74(64.3)	9(7.8)	17(14.8)	15(13.0)	115(100.0)
χ^2=6.502 df=3 p=.090						
학교 규모	30학급이상	59(68.6)	.	11(12.8)	16(18.6)	86(100.0)
	30학급미만	76(63.6)	10(8.3)	17(14.2)	17(14.2)	120(100.0)
χ^2=8.065 df=3 p=.045*						

*p<.05 **p<.01 ***p<.001

주)①가정 ·학교 ·지역사회간에 교육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②가정 ·지역사회의 협조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③학교 밖 학생 학습활동은 가정과 지역사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④학교(교육청) ·지역사회 기관단체에서 휴업일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
⑤기타

성별(p<.05), 학교 규모별(p<.05)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났다. 구체적으로 성별에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간에 교육 협력체제를 구축한다'에 '남자(54.7%)'보다는 '여자(69.3%)'가, '학교 ·지역사회 기관단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에 여자(12.4%)보다는 '남자(26,4%)가 높게 반응하였고, 학교규모별에서는 학교규모가 클수록(30학급이상 68.6%, 30학급미만 63.6%) 가정 ·학교 ·지역사회간에 교육 협력체제 구축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동들에게 제공해 주기를 더 원하고 있으며, '가정 및 지역사회의 협조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에서 남녀와 학급규모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경력, 소재지역별 각 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가정 ·학교 ·지역사회간에 협력체제 구축 수준(<표 Ⅳ-22> 참조)

주 5일 수업제 실시될 경우 휴업일에 학생들의 교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정 ·학교 ·지역사회간에 공동적 교육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근무지역내에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간에 공동적 교육 협력체제 구축 수준(정도)에 대한 질문에서 '낮은 편이다'에 39.8%, '보통이다'에 27.7%, '매우 낮다'에 25.7% 순으로 주 5일 수업을 위한 교육 협력체제 구축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경력, 소제지역, 학교규모별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2> 가정 ·학교 ·지역사회간에 협력체제 구축 수준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계
전 체		53(25.7)	82(39.8)	57(27.7)	14(6.8)	206(100.0)
성별	남	11(20.8)	25(47.2)	11(20.8)	6(11.3)	53(100.0)
	여	42(27.5)	57(37.3)	46(30.1)	8(5.2)	153(100.0)
χ^2=5.041		df=3	p=.169			
경력	10년미만	13(21.3)	25(41.0)	19(31.1)	4(6.6)	61(100.0)
	10년이상20년미만	25(34.2)	30(41.1)	17(23.3)	1(1.4)	73(100.0)
	20년이상	15(20.8)	27(37.5)	21(29.2)	9(12.5)	72(100.0)
χ^2=10.786		df=6	p=.095			
소재 지역	시군지역	22(24.2)	43(47.3)	24(26.4)	2(2.2)	91(100.0)
	광역시이상	31(27.0)	39(33.9)	33(28.7)	12(10.4)	115(100.0)
χ^2=7.594		df=3	p=.055			
학교 규모	30학급이상	17(19.8)	33(38.3)	27(31.4)	9(10.5)	86(100.0)
	30학급미만	36(30.6)	49(40.8)	30(25.0)	5(4.2)	120(100.0)
χ^2=5.780		df=3	p=.123			

*p<.05 **p<.01 ***p<.001

주) ①매우 낮다 ②낮은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높은 편이다.⑤매우 높다.

3) 사회교육 시설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표 Ⅳ-23> 참조)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함에 우선적으로 아동들이 필요한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견해에서 '아동들이 취미 ·특기활동을 위한 체육 ·문화시설의 확충'에 5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학구단위 도서관이나 독서실과 같은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에 20.4%,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관련 단체의 확대'에 15.0%, '공공시설 내에 아동들의 학습을 돕는 지원 센터 설치'에 7.3% 순으로 나타났다.

소재지별 두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재지역별에서 교육환경이 비교적 좋은 광역시 이상 지역에서는 '아동들이 취미 ·특기활동을 위한 체육 문화시설 확충(광역시 이상이 69.0%, 시군지역이 53.8%)'과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단체의 확대(광역시 이상 20.0%, 시군지역 8.8%)'에서 높은 반응을 보이고, 교육환경이 열악

하다고 생각되는 시군지역에서는 '학구단위 도서관이나 독서실과 같은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시군지역 27.5%, 광역시 이상 14.8%)'에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휴업일에 아동들이 학습할 수 있는 사회교육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성별, 경력, 학교규모별 각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3> 사회교육 시설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계
전 체		42(20.4)	118(57.3)	31(15.0)	15(7.3)	206(100.0)
성별	남	8(15.1)	29(54.7)	10(18.9)	6(11.3)	53(100.0)
	여	34(22.2)	89(58.2)	21(13.7)	9(5.9)	153(100.0)
		χ^2=3.5353	df=3	p=.340		
경력	10년미만	8(13.1)	35(57.4)	11(18.0)	7(11.5)	61(100.0)
	10년이상20년미만	18(24.7)	40(54.8)	10(13.7)	5(6.8)	73(100.0)
	20년이상	16(22.2)	43(59.7)	10(13.9)	3(4.2)	72(100.0)
		χ^2=5.473	df=6	p=.485		
소재 지역	시군지역	25(27.5)	49(53.8)	8(8.8)	9(9.9)	91(100.0)
	광역시이상	17(14.8)	69(60.0)	23(20.0)	6(5.2)	115(100.0)
		χ^2=10.113	df=3	p=.018*		
학교 규모	30학급이상	19(22.1)	49(57.0)	11(12.8)	7(8.1)	86(100.0)
	30학급미만	23(19.2)	69(57.5)	20(16.7)	8(6.7)	120(100.0)
		χ^2=.862	df=3	p=.835		

*p<.05 **p<.01 ***p<.001

주)①학구단위로 도서관이나 독서실과 같은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
②아동들이 취미 ·특기활동을 위한 체육 ·문화시설의 확충
③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관련 단체의 확대
④공공시설 내에 아동들의 학습을 돕는 지원 센터 설치 ⑤기타

4)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확보 정도(<표 Ⅳ-24> 참조)

주 5일 수업제을 운영함에 휴업일에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은 지역 내에 어느 정도인가의 질문에 전체적으로는 '매우 부족하다'에 45.1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부족한 편이다'에 41.3%, '보통이

다'에 12.1%, '충분한 편이다'에 1.5% 순으로 휴업일에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4>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확보 정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계
전 체		93(45.1)	85(41.3)	25(12.1)	3(1.5)	206(100.0)
성별	남	25(47.2)	21(39.6)	7(13.2)	.	53(100.0)
	여	68(44.4)	67(41.8)	18(11.8)	3(2.0)	153(100.0)
		χ^2=1.218	df=3	p=.749		
경력	10년미만	25(41.0)	27(44.3)	7(11.5)	2(3.3)	61(100.0)
	10년이상20년미만	34(46.6)	32(43.8)	6(8.2)	1(1.4)	73(100.0)
	20년이상	34(47.2)	26(36.1)	12(16.7)	.	72(100.0)
		χ^2=5.655	df=6	p=.463		
소재 지역	시군지역	53(58.2)	28(30.8)	8(8.8)	2(2.2)	91(100.0)
	광역시이상	40(34.8)	57(49.6)	17(14.8)	1(0.9)	115(100.0)
		χ^2=12.660	df=3	p=.005**		
학교 규모	30학급이상	39(45.3)	35(40.7)	10(11.6)	2(2.3)	86(100.0)
	30학급미만	54(45.0)	50(41.7)	15(12.5)	1(0.8)	120(100.0)
		χ^2=.810	df=3	p=.847		

*p<.05 **p<.01 ***p<.001

주)①매우 부족하다 ②부족한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충분한 편이다.
⑤매우 충분하다.

성별, 경력, 학교규모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각 집단 간에 비슷한 반응이나, 소재지역(p<.01)의 시군지역과 광역시 이상 두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시군지역에서는 '매우 부족하다(58.2%)', '부족한 편이다(30.8%)' 순인데 광역시 이상에서는 '부족한 편이다(49.6%)', '매우 부족하다(34.8%)' 순으로 나타나 주 5일 수업제을 운영함에 휴업일에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은 광역시 이상 지역 보다 시군지역이 더 부족함을 말해 주고 있다

5) 사회교육 시설 및 공간 활용시 편의성(<표 Ⅳ-25> 참조)

주 5일 수업제을 실시함에 지역 내에 사회교육 시설이나 공간을 활용하고자 할 때 편의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 결과를 보면 '사용료(입장료)와 절차 면에서 누구나 쉽게 이용 할 수 있다'에서 2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이용하기 어렵다'에 25.2%,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사용료 때문에 부담스럽다'에 19.9%, '절차는 복잡하지만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에 18.0%, 기타에 9.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경력, 소재지역, 학교규모별에서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Ⅳ-25> 사회교육 시설 및 공간 활용시 편의성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
전 체		56(27.2)	37(18.0)	52(25.2)	41(19.9)	20(9.7)	206(100.0)
성별	남	16(30.2)	9(17.0)	14(26.4)	10(18.9)	4(7.5)	53(100.0)
	여	40(26.2)	28(18.3)	38(24.8)	31(20.3)	16(10.5)	153(100.0)
χ^2=.696 df=4 p=.952							
경력	10년미만	21(34.4)	11(18.0)	16(26.2)	10(16.4)	3(4.9)	61(100.0
	10년이상20년미만	18(24.7)	13(17.8)	19(26.0)	13(17.8)	10(13.7)	73(100.0)
	20년이상	17(23.6)	13(18.1)	17(23.6)	18(25.0)	7(9.7)	72(100.0)
χ^2=5.922 df=8 p=.656							
소재지역	시군지역	20(22.0)	11(12.1)	28(30.8)	20(22.0)	12(13.2)	91(100.0)
	광역시이상	36(31.3)	26(22.6)	24(20.9)	21(18.3)	8(7.0)	115(100.0)
χ^2=9.112 df=4 p=.058							
학교규모	30학급이상	23(26.7)	14(16.3)	18(20.9)	18(20.9)	13(15.1)	86(100.0)
	30학급미만	33(27.5)	23(19.2)	34(28.3)	23(19.2)	7(5.8)	120(100.0)
χ^2=5.856 df=4 p=.210							

*p<.05 **p<.01 ***p<.001

주) ①사용료(입장료)와 절차 면에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② 절차는 복잡하지만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③절차가 복잡하고 이용하기는 어렵다.
④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사용료(입장료) 때문에 부담스럽다. ⑤기타

6) 주 5일제 수업에 필요한 인력(<표 Ⅳ-26> 참조)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어떤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질문에서 전체적인 응답결과는 '특기 ·적성교육 강사'에 27.7%, '지역의 전문인사'에 27.2%, '자원 봉사자'에 25.7% 순으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학습 도우미'(18.0%)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26> 인력자원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
전 체		37(18.0)	53(25.7)	56(27.2)	57(27.7)	3(1.5)	206(100.0)
성별	남	11(20.8)	8(15.1)	14(26.4)	20(37.7)	.	53(100.0)
	여	26(17.0)	45(29.4)	42(27.5)	37(24.2)	3(2.0)	153(100.0)
χ^2=7.114 df=4 p=.130							
경력	10년미만	8(13.1)	18(29.5)	18(29.5)	17(27.9)	.	61(100.0)
	10년이상20년미만	13(17.8)	20(27.4)	21(28.8)	16(21.9)	3(4.1)	73(100.0)
	20년이상	16(22.2)	15(20.8)	17(23.6)	24(33.3)	.	72(100.0)
χ^2=10.316 df=8 p=.244							
소재 지역	시군지역	15(16.5)	20(22.0)	24(26.4)	30(33.0)	2(2.2)	91(100.0)
	광역시이상	22(19.1)	33(28.7)	32(27.8)	27(23.5)	1(0.9)	115(100.0)
χ^2=3.397 df=4 p=.494							
학교 규모	30학급이상	15(17.4)	13(15.1)	31(36.0)	26(30.2)	1(1.2)	86(100.0)
	30학급미만	22(18.3)	40(33.3)	25(20.8)	31(25.8)	2(1.7)	120(100.0)
χ^2=11.187 df=4 p=.025*							

*p<.05 **p<.01 ***p<.001

주)①학부모 도우미 ②자원 봉사자 ③지역의 전문 인사 ④특기 ·적성교육의 강사 ⑤기타

학교규모(p<.05)에서는 '30학급 미만'과 '30학급 이상'의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학교 규모별에서는 30학급이상에는 '지역의 전문인사(36.0%)', '특기 ·적성교육 강사(30.2%)' 순이고, 30학급미만에는 '자원 봉사자(33.3%)', '특기 ·적성교육 강사(25.8%)', '지역의 전문인사(20.8%)' 순으로 차이 있는 반응을 보이고 있

다. 성별 경력, 소재지역 각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특기 기능면에서 교사의 능력과 지역의 교육환경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지역의 교육환경과 단위 학교의 조직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였다.

7) 인력자원 확보의 기준(<표 Ⅳ-27> 참조)

인력자원 확보에서 가장 중요시되어야 하는 기준에 대한 질문에 '관련 분야 실무 경험'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관련 분야 전문 지식' 27.2%, '지도의욕 및 열성' 24.8%,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 6.3%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27> 인력자원 확보의 기준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
전 체		13(6.3)	85(41.3)	56(27.2)	51(24.8)	1(0.5)	206(100.0)
성별	남	2(3.8)	23(43.4)	14(26.4)	14(26.4)	.	53(100.0)
	여	11(7.2)	62(40.5)	42(27.5)	37(24.2)	1(0.7)	153(100.0)
χ^2=1.248 df=4 p=.870							
경력	10년미만	2(3.3)	32(52.5)	16(26.2)	11(18.0)	.	61(100.0)
	10년이상20년미만	5(6.8)	20(27.4)	22(30.1)	25(34.2)	1(1.4)	73(100.0)
	20년이상	6(8.3)	33(15.8)	18(25.0)	15(20.8)	.	72(100.0)
χ^2=13.428 df=8 p=.098							
소재 지역	시군지역	4(4.4)	31(34.1)	33(36.3)	23(25.3)	.	91(100.0)
	광역시이상	9(7.8)	54(47.0)	23(20.0)	28(24.3)	1(0.9)	115(100.0)
χ^2=8.745 df=4 p=.068							
학교 규모	30학급이상	6(7.0)	34(39.5)	24(27.9)	22(25.6)	.	86(100.0)
	30학급미만	7(5.8)	51(42.5)	32(26.7)	29(24.2)	1(0.8)	120(100.0)
χ^2=.996 df=4 p=.910							

*p<.05 **p<.01 ***p<.001

주) ①관련분야 자격증 소지 ②관련분야 실무 경험 ③관련분야 전문 지식
④지도의욕 및 열성 ⑤기타

성별, 경력, 소재지역, 학교규모별 각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반응을 보였다.,

8) 주 5일 수업제를 위한 제도적 지원체제(<표 Ⅳ-28> 참조)

주 5일 수업제를 위하여 제도적 지원체제 면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한 질문에서 '풍부하고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86.4%로 아주 높은 반응을 보이며 다음으로는 '관련 정부 부서의 공동적 지원'에 6.3%,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에 3.9%, '축적된 관련 정보 제공'에 3.4%로 낮은 분포로 나타났다.

성별, 경력, 소재지역, 학교규모별 각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반응을 보였다.

<표 Ⅳ-28> 주 5일 수업제를 위한 제도적 지원체제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계
전 체		178(86.4)	13(6.3)	8(3.9)	7(3.4)	206(100.0)
성별	남	44(83.0)	3(5.7)	2(3.8)	4(7.5)	53(100.0)
	여	134(87.6)	10(6.5)	6(3.9)	3(2.0)	153(100.0)
		χ^2=3.760	df=3	p=.289		
경력	10년미만	48(78.7)	8(13.7)	3(4.9)	2(3.3)	61(100.0)
	10년이상20년미만	66(90.4)	4(5.5)	2(2.7)	1(1.4)	73(100.0)
	20년이상	64(88.9)	1(1.4)	3(4.2)	4(5.6)	72(100.0)
		χ^2=10.227	df=6	p=.115		
소재 지역	시군지역	81(89.0)	3(3.3)	5(5.5)	2(2.2)	91(100.0)
	광역시이상	97(84.3)	10(8.7)	3(2.6)	5(4.3)	115(100.0)
		χ^2=4.255	df=3	p=.235		
학교 규모	30학급이상	77(89.5)	6(7.0)	1(1.2)	2(2.3)	86(100.0)
	30학급미만	101(84.2)	7(5.8)	7(5.8)	5(4.2)	120(100.0)
		χ^2=3.585	df=3	p=.310		

*p<.05 **p<.01 ***p<.001

주) ①풍부하고 다양한 사회교육 인프라 구축 ②관련 정부 부서의 공동적인 자원 ③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조직 ④축적된 관련 정보 제공 ⑤기타

3. 종합적 논의

본 연구는 주 5일 수업제 수업이 단계적 확대 시행을 앞두고 2001년 3월 1일부터 2003년 2월 28일가지 연구 ·시범학교 운영에 참여했던 초등교원 대상으로 주 5일 수업제의 운영 환경, 주 5일 수업제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역사회의 지원체제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주 5일 수업제의 운영 환경

현재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 대부분 오랜 기간동안 교육관련 기관의 공통된 합의를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자유 학습의 날, 책가방 없는 날' 등 다소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2000년 10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주 5일 근무에 대한 단계적 추진이란 논의가 시작되면서 학교 주 5일 수업제 도입에 대한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그 시행에 대해서도 정부기관의 발표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어 외국과 같이 공통된 합의를 거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대하여 '찬성한다(66.5%)', '적극 찬성한다(22.3%)'에 대한 반응이 대부분 차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주 5일 수업제을 위해 직접 경험하고 운영해 본 초등교원들의 인식이 긍정적이다는 점에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와 같이 주 5일 근무제와 주 5일 수업제가 동시에 거의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경우에 외국에 비하여 충분한 준비 기간이 부족한 우리에게는 다소나마 불안감을 덜어주는 요소이다.

주 5일 수업제의 운영하고자 하는 이유에는 '주 5일 근무제와 같은 주변 상황의 변화'와 같은 교육외적인 요인으로 이해하는 교원이 있으나

‘체험적인 학습이나 개별 학습시간 확대’, ‘자주적인 학습의 기회제공’과 같은 교육 내적인 요인으로 이해하는 교원도 많았다. 이는 체험적인 학습이나 자주적인 학습이 아동들의 창의적인 활동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미와 교원들도 주 5일 근무제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완전 주 5일제 수업제를 도입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2004년이 적당하다(36.9%)’, ‘2006년이 적당하다(33.5%)’ 순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별, 경력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소재지역 및 학교규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시군지역과 30학급 미만에서는 2004년이 적당한 것으로 광역시 이상과 30학급 이상에서는 2006년이 적당하다에 높게 응답하고 있다. 직장인이 많은 대도시는 주 5일 근무제를 염두에 두고 응답한 것 같고, 중 ·소도시는 조기에 도입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이는 금융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실시와 삼성, 포스코 같은 대기업이 년 내 주 5일 근무제 조기 실시계획 발표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의 결과도 있지만 연구 ·시범학교 운영 결과 주 5일 수업제에 대한 주변여건이 성숙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럽의 여러나라의 경우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그 나라의 생활문화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일본의 경우도 10년의 기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준비기간이 짧고 논의가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 염려된다.

주 5일 수업제 실시에서 휴업일은 ‘현재의 일요일과 같이 자유롭게 보내게 한다(45.1%)’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 5일제 수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아동들의 학습활동의 변화이다. 휴업일 운영에 대해 교원들은 아동들이 가족과 함께 자유롭게 보내며 감성 및 인성발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 아동들의 학습활동도 체험활동을 통한 창의력과 문제해결을 중시하는 새로운 학력관으로 변화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주 5일 수업제 확대 운영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에 대한 응답은 ‘교육과정 의 구성 및 편제 개선(56.8%)’이 과반수 이상으로 가장 높게 반응했고, 다음으로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교육 시설확충’으로 나타났다. 주 5일 수업제 확대 시행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요소로는 ‘현재의 과다한 교육내용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교사와 학생에게 부담을 증대하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50.5%)’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다. 소재지역별에서 시군지역이 광역시 이상 지역 보다 ‘교육과정의 구성 및 편제 개선’과 ‘현재의 과다한 교육내용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교사와 학생에게 부담을 증대하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에 높은 인식을 보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성별, 경력별, 학교규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현행 7차 교육과정은 주 6일 수업제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어 현재의 교육과정의 내용으로는 교사와 학생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시군지역의 학생이나 교사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되어 비효율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주 5일 수업제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재검토가 불가피함을 지적할 수 있다.

주 5일 수업제 운영으로 문제시되는 것은 ‘맞벌이 부부 자녀관리(69.4%)’에 가장 높게 반응을 하였고, 다음으로 ‘학부모 부담가중’, ‘사교육비 증가’ 순이다. 경력, 소재지역, 학교규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성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이는 나 홀로 아동에 대한 생활지도와 학습지도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남자보다 여자에서 응답이 높고, ‘학생들의 학력저하’의 염려보다는 ‘사교육비 증가’와 ‘학부모 부담가중’에 더 염려하는 것으로 보아 지역사회와 국가공공기관 등에서 적극적인 지원체제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휴업일에 아동들의 학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자녀와 함께 할 시간 부족', '지역사회의 사회교육 체제 미흡' 순으로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각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함께 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주 5일 수업제을 운영하고자 이유<표 Ⅳ-3>에서 '주 5일 근무제와 같은 주변 상황의 변화'에 있듯이 주 5일 수업제도 주 5일 근무제와 함께 이루어져야 자녀의 학습을 도와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나 홀로 아동에 대한 관리대책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36.9%)'이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특기 적성 교육 강화' 순이다. 성별, 경력, 소재지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학교규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학교규모가 30학급 이하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안내'에 높은 응답을 보이고, 30학급 이상에서는 '특기 ·적성교육 강화',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안내', '소집단 협동학습 유도'에서도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동의 희망에 따라 동아리별 참여하게 함으로 생활지도와 인성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나) 주 5일 수업제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주 5일 수업제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서는 '7차 교육과정을 주 5일 수업에 맞게 축소하여 운영한다(76.2%)'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이고, '지역 및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단위학교별로 계획한다',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한다'에 저조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성별, 소재지역, 학교규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남자와 시도지역, 30학급 이상에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여자와 광역시 이상지역에서 '지역이나 학교여건에 따라 단위학교별로 계획한다'에 다음

으로 높은 반응을 보이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행 7차 교육과정으로는 주 5일 수업에 무리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제 시행된 7차 교육과정을 새로운 교육과정(8차 교육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보다는 주 5일 수업제에 맞게 축소 개편하되, 교육과정 개편에서 고려할 내용은 '교육과정의 량을 줄이고(62.9%)', '질을 개선하는 것(24.8%)'이 우선이 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주 5일 수업제 시행에서 부족한 수업일수 확보하기 위해서 '관계 법령 개정(49.5%)' '교육과정 개편(45.6%)'순으로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성별, 경력별, 소재지역별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학교규모에서 수업일수 확보를 위해 방학일수를 줄이거나, 평일에 1시간씩 더 수업하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차이가 있다. 현행 7차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경우 부족한 수업일수를 확보에 바람직한 수업일수는 현행 220일에서 34주의 휴업일을 공제한 '186일(40.0%)', '관할청의 승인으로 1/10을 감축한 198일(38.0%)' 순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주 5일 수업제 실시를 위해서는 관계 법령개정 및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휴업일 선정에서는 성별, 경력, 소재지역, 학교규모별은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토요일(82.5%)'을 휴업일로 하여 일요일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이 많은 시간을 체험학습을 할 수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반응을 보이고, 완전 주 5일제 전 단계로 실시한 휴업일 프로그램 운영에서 아동들에게 '체험학습의 기회가 많아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향상(54.4%)' 과 '여유 ·휴식의 기회가 많아 전인적인 성장에 도움이 된 것(32.5%)'으로 느끼고 있으며, 휴업일 프로그램 운영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점은 '학부모들이 아동을 지도할 여건이 되어 있지 않다(47.6%)'와 '사회여건이 미흡하여 외부기관의 프로그램 이용이 어렵다(37.4%)'는 것으로 나타나, 완전 주 5일 수업제 시행 시에는 학생들의 취미와 적성을

살려 줄 수 있는 체험학습 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수요자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 운영에서 교사가 느끼는 애로점으로는 '휴업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안내하는 것이 어려웠다(43.2%)', '휴업일 프로그램 운영의 사전 사후 지도가 어려웠다(26.2%)', '휴업일로 인한 과다한 학습량을 지도하기가 어려웠다(25.2%)' 순으로 주 5일 수업제 실시에 교사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학습지도, 생활지도 외에 휴업일의 활동까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안내하고 지도 평가하기엔 업무가 과중하므로 지역단위의 지원체제 협력기구의 조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운영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주휴 2일로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기초 ·기본학력 부진 학생지도에 충실한다(46.1%)', '수준별 교육과정에 충실한다(43.7%)'로 나타났고, 휴업일에 등교시켜 개별 지도하거나, 과제제시로 가정에 일임하는 것으로는 교육의 질 저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경력, 소제지역, 학교규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성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남자는 '기초 ·기본학력부진 학생지도에 충실한다', 여자는 '수준별 교육과정에 충실한다'에 높은 반응을 보이는 인식의 차는 있으나, 교사의 사명감을 갖고 단위시간에 기초 ·기본학력 부진 학생과 수준별 교육과정에 충실히 이행할 때 염려했던 교육의 질 저하에 대처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 지원체제 및 협력관계

주 5일 수업제를 위하여 가정 ·학교 ·지역사회간에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협력체제 구축를 구축한다(6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력, 소재지역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성별, 학교규모에서는 집단 간에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30학급 미만보다는 30학급 이상에서, 학교규모가 클수록 가정 ·학교 ·지역사회간에 교육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다. 현재 근무지 내에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간에 공동적 교육 협력체제 구축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완전 주 5일 수업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간에 공동적인 교육협력체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휴업일에 아동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주 5일 수업제을 운영함에 '매우 부족하다(45.1%)', '부족한 편이다(41.3%)',순으로 아동들이 휴업일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경력, 학교규모별에서는 유의미한 차가 없으나 소재지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광역시 이상 지역보다는 시군지역이 더 사회교육시설 부족을 느끼고 있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회교육 시설은 '취미와 특기활동을 위한 체육 ·문화 시설 확충(57.3%)', '학구단위 도서관이나 독서실과 같은 자율적으로 학습 할 수 있는 시설 확충(20.4%)' 순으로 주휴 2일 동안 아동들이 학습 할 수 있는 사회교육 시설이 부족함을 말해 주고 있다. 성별, 경력, 학교규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소재지역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비교적 교육환경이 좋은 광역시 이상 지역에서는 아동들의 취미 특기활동을 위한 체육 ·문화 시설 확충에, 교육환경이 열악하다고 생각되는 시도지역에서는 학구단위 도서관이나 독서실과 같은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설확충에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설활용 편의성에 대해서는 '사용료 및 절차 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27.2%)', '절차가 복잡하고 이용하기 어렵다(25.2%)',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사용료가 부담스럽다(19.9%)', '절차가 복잡하지만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18.0%)로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지역내 교육

환경이나 사회교육시설 및 공간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어떤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서 '특기적성 강사', '지역의 전문인사', '자원 봉사자' 순으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학교규모에서 교사의 능력과 지역의 교육환경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의 교육환경과 학교 구성원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인력확보의 기준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실무경험(41.3%)', '관련 분야 전문지식인(27.2%)', '지도의욕 및 열성(24.8%)' 순으로 전문 자격증의 소유자보다는 초등교육에서는 기초 ·기본교육의 충실이므로 관련 분야의 실무경험이 많은 사람이 교육적으로 효과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주 5일 수업제를 위하여 제도적 지원체제의 응답자의 반응은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풍부하고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8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관련 정부 부서의 공동적 지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축적된 관련 정보제공'은 미미한 반응을 보여 휴업일에 아동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거나 체험학습 및 여가선용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부족이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주 5일 수업제를 위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사회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하고있다.

Ⅴ. 요약 및 결론

이 장에서는 주 5일 수업제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근거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1. 요 약

주 5일 수업제가 단계적 점진적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이미 교육부 및 시 ·도 교육청 지정 5일 수업제 연구 ·시범학교에 운영에 참여했던 초등교원들의 인식을 토대로 주 5일 수업제의 운영 환경,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역사회의 지원체제 및 협력관계 등을 분석하여 주 5일 수업제에 확대 실시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주 5일 수업제 정착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서 연구방법은 주 5일 수업제 연구 ·시범학교 운영 보고서와 선행 연구물을 통한 문헌연구, 질문지를 통한 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은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시 ·도 교육청 지정 주 5일 수업제 연구 ·시범학교 13개교에 근무하는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허였다. 질문지는 260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질문지 중 206부를 통계 처리하였다. 자료의 처리는 SPSSWIN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chi-square test)으로 통계적 분석을 하였다.

위의 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주 5일 수업제의 운영 환경

주 5일 수업제 운영은 초등교원 대부분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 5일 수업제을 위해 직접 경험하고 운영해 본 초등교원들의 인식이 긍정적이다는 점에 의미가 있고, 주 5일 수업제의 운영하고자 하는 이유에는 '주 5일 근무제와 같은 주변 상황의 변화' 와 같은 교육외적인 요인으로

이해하는 교원이 있으나 '체험적인 학습이나 개별 학습시간 확대', '취미나 특기활동을 통한 자주적인 학습활동 기회 제공' 등으로 교육 내적인 요인으로 이해하는 교원도 많았다. 주 5일제 수업제를 도입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연구 ·실험단계가 끝나는 2004년' '단계적으로 실시한 후 2006년' 순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소재지역과 학교규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30학급미만과 시군지역에서는 연구 ·실험단계가 끝나는 2004년이 적당하다. 30학급이상과 광역시 이상의 집단에서는 단계적으로 실시한 후 2006년이 적당하다로 나타났다.

주 5일 수업제 실시에서 휴업일 선정은 토요일을 가장 선호하고, 휴업일 운영형태는 '현재의 일요일과 같이 자유롭게 보내게 한다', '가정과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한다' 순으로 나타났다. 토요일을 휴업일로 하는 것이 일요일과 연계하여 가족과 함께 자유롭게 보내기를 바라고 있다.

주 5일 수업제 확대운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는 '교육과정 의 구성 및 편제 개선',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교육 시설 확충' 순으로 반응을 보이고, 소재지역에서 '교육과정의 구성 및 편제 개선'에 광역시 이상 집단보다 시군지역이 더 높게 나타나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확대운영시 장애가 되는 것은 '현재의 과다한 교육내용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교사와 학생에게 부담을 가중한다'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여, 현행 7차 교육과정은 주 6일 수업제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어 주 5일 수업제를 위해서는 학사일정 및 교육과정의 재검토가 불가피함을 말해 주고 있다.

주 5일 수업제 운영으로 문제시되는 것은 '맞벌이 부부 자녀관리'로 성별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더 심각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고, 나 홀로 아동에 대한 대책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방 안내', '자원 봉사자를 활

용한 특기 ·적성교육 강화'에 비슷하게 나타났다. 학교규모에서 30학급 미만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방 안내', 30학급 이상에서는 '자원 봉사자를 활용한 특기 적성교육 강화'에 높게 나타나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휴업일 아동들의 학습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자녀와 함께 할 시간의 부족', '지역사회의 사회교육 체제 미흡'에 비슷한 반응을 보였고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나 주 5일 수업제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교육과정 운영에서 경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성별, 소재지역, 학교규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7차 교육과정을 주 5일 수업에 맞게 축소하여 운영한다'에 가장 높게 반응을 했고, 다음으로 남자와 시도지역, 30학급 이상에서는 '새로운 교육과정 개편'을 여자와 광역시, 30학급 미만에서는 '지역 및 학교여건에 따라 단위학교별 계획'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과정을 개편한다면 '교육과정의 양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에 높은 반응이 나타났다.

주 5일 수업제 시행에서 현행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부족한 수업일수(수업시수) 확보를 위해서는 '관계 법령개정'과 '교육과정 개편'에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학교규모별에서 30학급이상은 수업일수 확보를 위해 방학을 줄이거나, 평일에 수업을 1시간씩 더하는 것에 무응답으로 부정적 견해이다. 바람직한 수업일수에 대한 인식은 '186일'과 '198일'에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휴업일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아동들에게 '체험학습의 기회가 많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향상되었다'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여유 ·휴식의 기회가 많아 전인적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로 인식되었다. 아

동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가정에서 학부모들이 아동을 지도할 여건이 되어 있지 않다', '사회여건이 미흡하여 외부기관의 프로그램 이용이 어렵다' 순으로 나타났고, 경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층인 10년 이상 20년 미만에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교사가 느끼는 애로점으로는 '휴업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안내하는 것이 어려웠다'에 가장 높고 '휴업일 사전 사후 지도가 어려웠다', '과다한 학습량을 지도하기 어려웠다'는 비슷한 반응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질 저하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경력, 소재지역, 학교규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성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기초 기본학력 부진학생지도에 충실한다', '수준별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한다'에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고, 남자는 '기초 ·기본학력 부진학생지도에 충실' 여자는 '수준별 교육과정에 충실'에 높은 반응으로 나타났다.

다 지원체재 및 협력관계

주 5일 수업제를 위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간에 교육 협력체제를 구축한다'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성별과 소재지역에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학교규모가 클수록 더 필요성을 느끼는 차이가 있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 공동적 협력체제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휴업일 아동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교육시설 및 공간 확보 정도는 '매우 부족하다', '부족하다' 순으로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소재지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광역시이상 지역보다 시군지역이 더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회교육 시설은 '취미 ·특기활동을 위한 체육 ·문화시설 확충'에 과반수 이상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도서관이나 독서실과 같은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설 확충’으로 나타났다. 사회교육시설을 활용할 때 편의성에는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용하기 어렵다’, ‘사용료가 부담스럽다’, ‘절차가 복잡하다’에서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소재지역에서 지역 교육환경이나 사회교육시설에 따라 조금씩 차이 있는 응답을 해주고 있다.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지역의 전문인사’, ‘특기 ·적성교육 강사’, ‘자원봉사자’ 순으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30학급 이상에서는 ‘지역의 전문인사’, 30학급 미만에서는 ‘자원봉사자’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인력선정 기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관련분야 실무 경험자’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 5일 수업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풍부하고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아주 높은 반응을 보여 휴업일에 아동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에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제도적 지원체제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2.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로 도출된 연구 결과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 5일제 수업 운영을 직접 경험하고 운영해 본 초등교원의 인식은 매우 긍정적이며, 주 5일 수업제를 운영하고자 이유는 주변상황의 변화와 같은 교육외적 요인으로 이해하는 교원도 있으나 체험학습, 특기 ·적성교육활동을 통한 자주적인 학습활동기회 제공 등 교육 내적인 요인으로 이해하는 교원도 많았다. 도입하는 시기는 실험 ·연구 단계가 끝나는 2004년과 단계적으로 실시한 후 2006년에 완전 주 5일 수업제 시

행이 바람직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 5일 수업제에 대한 주변여건이 성숙되어 가고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2006년부터는 완전 주 5일 수업제를 도입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둘째. 휴업일은 토요일을 가장 선호하고, 운영형태는 현재의 일요일과 같이 자유롭게 보내게 하여 감성 및 인성 발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체험활동을 통한 창의력과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새로운 학력관으로 변화하여야 할 것이며, 아동들의 학습활동도 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개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교육과정의 구성 및 편제 개선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이고, 확대 운영시 장애가 되는 것은 과다한 교육내용으로 학생과 교사에게 부담을 증대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7차 교육과정은 주 6일 수업제을 기준으로 구성 및 편제되어 있어 과다한 교육내용으로 교사와 아동에게 부담을 주므로 주 5일 수업제에 맞게 교육과정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주 5일 수업제 운영으로 문제시되는 것은 맞벌이 부부 자녀관리로 나 홀로 아동에 대한 생활지도와 학습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대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안내하는 일과 자원 봉사를 활용한 특기 ·적성교육 강화 등으로 나타났다, 휴업일에 아동들의 학습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할 시간 부족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주 5일 수업제 실시를 위해서는 주 5일 근무제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과정 운영은 7차 교육과정을 주 5일 수업에 무리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교육과정 개편 내용은 양을 줄이고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이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주 5일제 시행에서 부족한 수업일수(수업시수) 확보를 위해 관

계법령 개정을 바라고 있으며, 수업 일수는 34주 휴업일을 공제한 186일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어 관계법령 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휴업일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아동들에게 체험학습의 기회가 많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과 여유 휴식 기회가 많아 전인적 성장에 도움이 된 것으로 인식되고, 아동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학부모들이 아동을 지도할 여건이 되어있지 않거나 사회여건이 미흡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교사가 느끼는 애로점에서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안내하고 휴업일 사전 ·사후지도가 어려웠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주 5일 수업제는 주 5일 근무제와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협력체제가 구축되어 체험학습 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수요자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여덟째.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으로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대처 방안에 기초 ·기본학력 부진학생 지도와 수준별 교육과정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수준별 교육과정을 단위시간에 충실히 이행할 때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염려를 덜 수 있을 것이다.

아홉째. 가정 ·학교 ·지역사회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교육 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협력체제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공동적 교육협력체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열째. 휴업일에 아동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교육시설 및 공간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회교육시설은 취미 ·특기활동을 위한 체육 ·문화시설 확충이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과 소규모 학교에서는 학구내 자율적인 학습공간인 도서관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교육시설 이용 편의성에 대해서 이용하기 어렵다, 사용료가 부담스럽다, 절차가 복잡하다 순으로 비슷하게 인식되

고 있다. 따라서 아동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사회교육시설을 확충, 풍부하고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편의성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 ·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열하나째. 주 5일 수업제에 필요한 인력은 특기 ·적성교육 강사, 지역의 전문인사, 자원 봉사 등으로 비슷한 반응을 보여 지역의 교육환경 및 학교구성원에 다라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 초등교육에서는 기초 ·기본교육의 충실이므로 관련분야 실무 경험이 많은 사람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주 5일 수업제에서 필요한 인력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단위학교별, 지역교육청별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저 서-

교육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8.

_____,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1)-총론, 재량활동-, 1999.

_____, 우리학교 달라져야 합니다, 교육개혁추진기획단 1995.

_____, 학교 주5일 수업제 안내, 학교정책과, 2001.

교육인적자원부, 연구학교 운영 개선 방향 탐색, 연구학교담당장학관 워크숍자료집, 2002.

김민호외 3인, 주 5일 수업제 운영관련 지역수준 프로그램 개발 및 전담기구 설치 ·운영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2002.

김재복, 이경환, 허경철, 초등학교교육과정 해설, 서울: 교육과학사, 1999.

서울특별시 교육청, 주 5일 수업제 조사 연구 보고서, 2001.

유한구, 조주연, 김승호, 주 5일제 수업에 대비한 교육과정 체제 구조개선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과정연구위원회, 1999.

이도인, 김상대, 주 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방안, 한국 주 5일 수업제 연구회, 2001.

이도인, 학교 5일제 연구, 대구: 학원사, 1996.

_____, 주 5일제 학교경영, 대구: 학원사, 2000.

이윤미, 구자억, 정광희, 주 5일 수업제 운영관련 사회적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1.

정광희 외 3인, 학교 주 5일제 대비 휴업일 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1.

정광희,이윤미, 이명실,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학교 운영방안 연

구, 한국교육개발원, 2000.
한국교육과정학회,새학교 문화창조와 교육과정, 한국교육과정학회,1999.

-논 문-

권석광, 「학교 주 5일제 운영을 위한 선행조건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박덕주, 「아동의 자기보고 방식을 활용한 초등학교 주 5일 수업제의 효과 분석」, 경남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이만형, 「주 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청소년 여가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기 타 문 서-

교육연합회, 「특집 주 5일 수업제」, 새교육, 통권 566호, 2001.2.
손응, 「주5일제 수업 도입 배경과 의의」, 서울교육 통권162호, 2001.3

-연구학교보고서-

모화초등학교, 「주 5일 수업제 운영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 」, 연구학교운영보고서, 2002.
봉평초등학교, 「다양한 체험활동 중심의 주 5일 수업제 교육과정 운영」, 연구학교운영보고서, 2002.
사창초등학교, 「자기 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한 주5일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연구학교육운영보고서, 1997.
옥산초등학교,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를 통한 주5일 수업제 운영」, 연구학교운영보고서, 2002.

울산초등학교, 「아동중심 학습활동을 위한 주5일 수업제 운영」, 연구학교운영보고서, 2002.

월학초등학교, 「소규모 학급의 책가방 없는 날 및 주 5일 수업제 운영 방안」, 연구학교운영보고서, 1996.

풍산초등학교, 「주5일 수업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학교 교육 과정 편성 운영 」, 연구학교운영보고서, 2002.

ABSTRACT

A Study on Efficient Five-Day School Workweek

Park, Sang-Ho

Major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ju University

Surpervised by Professor Lee, Tae-Jong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way elementary school teachers looked at environments related to the five-day school work- week, curriculum suitable for that system, backup system and collaboration among parties concerned in an effort to put that on the right track, as that's scheduled to be gradually enforced.

For that purpose, reports on model school for the five-day workweek and earlier studies were reviewed, and a survey was conducted. For data handling, SPSSWIN 10.0 program was utilized, and frequency analysis and Chi-square test were employed.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Environments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vestigated viewed the five-day

school workweek favorably, as most of them agreed to that. A lot of teachers felt that it's introduced for other reasons than educational ones, but many believed it's meant to provide better education. As for timing for its introduction, the year 2004 was most preferred, since every research and experiment are going to be brought to an end at that time. The second most favored time was 2006, as every phase-in experiment is going to finish in that year. But their view of that was different according to school location and school size.

The largest group wanted to take Saturdays off in case of implementing the five-day workweek system, and hoped to be allowed to be free on the days, like Sundays.

In order to enlarge the system, it's most requested to prepare better- organized curricula, but they felt that it would put pressure on both teachers and students if there is no change in heavy teaching load and student workload.

Regarding the problem with the system, it's expected to make it more difficult for working couples to take care of their children. By gender, the female teachers took it more seriously than the males. For children who would be left alone, they found it necessary to prepare a variety of programs or reinforce after-school extracurricular courses by using volunteers. The teachers from schools with fewer than 30 classes put more stress on preparing various programs, and those from schools with 30 or more classes placed more stock in strengthening after-school extracurricular courses by using volunteers, and their opinion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The factors to interfere

with child learning on holidays were that parents didn't have enough time to spend with their children, or that local community was devoid of full-scale social education system.

2. Curriculum

Regarding curriculum management, the largest group argued that the 7th national curricula should be condensed, and a lot of the teachers considered it mandatory to cut down on the curricula.

In case of sticking to the current curricula, they found it necessary to revise the laws concerned or revamp the curricula to make up for insufficient school days. They didn't agree to shorten the vacation or add one school hour to every school day as a way to secure sufficient school days. The ideal number of school days were considered to be 186 or 198 days.

The holiday programs were believed to provide a lot of experiential learning opportunities and consequently enhance children's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ies. They felt that children had difficulties because their parents weren't in a position to guide them. The teachers whose career was between 10 and fewer than 20 years faced economic pressure, since their children's education was under way, and it's not an easy task for them to develop holiday programs.

In order not to deteriorate education, they argued that it's required to put sincere efforts into educating underachieving students or fulfill the differentiated curricula. In particular, the male teachers placed more stress on guiding underachievers, whereas the female teachers accentuated executing the differentiated curricula.

C. Support and Collaboration

It's most widely agreed that home, school and local community should join forces for the successful application of the five-day school workweek. Those who were female or worked at larger school felt more need for that. They didn't think there was satisfactory collaborative efforts among family, school and local community.

A lot of social-education facilities available for children on holidays were called for, and the smaller urban areas lacked such spaces more than the larger urban communities. A majority of the teachers found it most necessary to install gyms and cultural centers, where children could do something for pleasure or develop their special talents, and the second most favored social-education facility type was library or reading room where they could study on their own. Their preference for the convenience of social-education facilities was slightly different according to local educational setting or the type of social-education facilities.

As for human resources, the five-day school workweek was thought to be most in want of local professionals, and the second most required personnels were after-school extracurricular program instructors, followed by volunteers. Regarding the standard of selecting manpower, experienced person in related field was most preferred.

Concerning institutional backup, a vast majority of the teachers claimed that plenty of social infrastructure be constructed, and this fact suggest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build social infrastructure for children to be engaged in self-directed learning on holidays.

부 록 (설문지)

주 5일 수업제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인 사 말 씀

안녕 하십니까?

여러 가지 학사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잠시나마 수고를 끼쳐 드리게되어 죄송합니다.

본 설문지는 주 5일 근무제와 같은 교육 외적인 요인과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력 신장 등 교육 내부적인 요인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 5일 수업제의 효과적인 운영에 관하여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해 주신 자료는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아울러 응답 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여러 설문들은 선생님의 교직 경험과 평소의 생각대로 성의껏 진솔하게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3 년 2 월 일

경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전공 박 상 호 드림

기 초 조 사

다음은 통계처리에 꼭 필요하오니 해당되는 곳에 " V"표를 하여 주십시오

1. 성 별 : ① 남자 ( ) ② 여자 ( )
2. 교직경력 : ① 1 10년 미만( ) ② 10년 이상 20년 미만( )
   ③ 20년 이상( )
3. 소재지역 : ① 시 ·군지역 ( ) ② 광역시 이상 ( )
4. 학교규모 : ① 30학급미만( ) ② 30학급이상( )

다음에 주어지는 질문을 잘 읽어보시고 평소 생각과 경험에 비추어 가장 가까운 항목 번호 앞의 _____에 "∨"표를 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기타 난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
〃주5일 수업제〃란 일주일(6일)에 5일만 학교에 등교하여 정규 교과 수업을 하고 1일은 가정에서의 다양한 체험으로 학교 학습을 심화 ·보충하는 학교 운영 방법을 말한다

Ⅰ. 주 5일 수업제 운영 현황에 대하여

1.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의견은 어떠합니까?
___ ① 매우 반대 ___ ② 반대 ___ ③ 중립
___ ④ 찬성 ___ ⑤ 매우 찬성

2. 주 5일 수업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 ① 주 5일 근무제와 같은 주변 상황의 변화
___ ② 경제력 향상에 따른 삶의 여유 확보
___ ③ 아동들의 체험활동이나 개별 학습시간의 확대
___ ④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역할 회복
___ ⑤ 취미나 특기활동 등으로 자주적인 학습 활동 기회 제공
___ ⑥. 기타( )

3. 완전 주 5일 수업제를 도입하는 시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합니까?
___ ① 연구 ·실험단계가 끝나는 2004년이 적당하다.
___ ② 단계적으로 실시한 후 2006년이 적당하다.(현 정부안)
___ ③ 휴업 일을 월 1회씩 연차적으로 늘려 2008년이 적당하다.
___ ④ 주 5일 근무제가 완전 실시되는 2010년이 적당하다.
___ ⑤ 지역이나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___ ⑥ 기타 ( )

(현 정부안 : 2004년까지 주 5일 수업제 연구 ·실험단계 완료,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전 학교 주5일 수업제 월 1 2회 실시,
2006년부터, 전 학교 완전 주5일 수업제 실시)

4. 주 5일 수업제의 실험 운영해 본 결과 휴업일 운영을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 ① 현재 일요일과 같이 자유롭게 보내게 한다.
___ ② 체험학습과제 및 교과 심화 ·보충학습 과제를 제시한다.
___ ③ 자유등교 일처럼 학교에서 특기 ·적성, 체험학습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___ ④ 가정과 지역사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한다.
___ ⑤ 기타 ( )

5. 주 5일 수업제의 확대 운영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 ① 교육과정의 구성 및 편제개선
___ ②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교육시설의 확충
___ ③ 제도적 지원 장치 마련
___ ④ 주 5일 수업제에 대한 사회인식 전환
___ ⑤ 기타 ( )

6. 주 5일 수업제의 확대 시행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____ ① 주 5일 근무제 부분 실시로 수용태세가 미흡하다.
____ ②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교육의 공백화를 초래할 수 있다
____ ③ 현재의 과다한 교육내용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교사와 학생에게 부담을 증대하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____ ④ 학생들이 건전한 여가 문화형성을 위한 사회교육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않다.

____ ⑤기타 ( )

7. 주 5일 수업제 운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 ① 학부모 부담 가중
___ ② 맞벌이 부부 자녀 관리
___ ③ 사교육 증가
___ ④ 학생들의 학력수준 저하
___ ⑤ 기타 ( )

8. 휴업일의 학습 활동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 ① 자녀와 함께 할 시간(여유)의 부족
___ ② 경제적(금전적) 요인
___ ③ 부모의 관심 부족
___ ④ 자녀의 의지 부족
___ ⑤ 지역사회의 사회교육 체제 미흡
___ ⑥ 기타 ( )

9. 나 홀로 아동에 대한 관리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 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안내
___ ② 통합 교과적 수행평가 과제 제시
___ ③ 자원 봉사자를 활용한 특기 ·적성교육 강화
___ ④ 소집단(동아리)을 구성한 협동학습 활동 유도
___ ⑤ 학습 도우미 활용
___ ⑥ 기타 ( )

Ⅱ.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하여

10. 학교 주 5일제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의견은 어떠합니까?

___ ① 현재 7차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한다.
___ ② 7차 교육과정을 주 5일에 맞게 축소하여 운영한다.
___ ③ 지역 및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단위 학교별로 계획한다.
___ ④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___ ⑤ 기타 ( )

11. 주 5일 수업제에서 현행 7차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부족한 수업일수(수업시수) 확보를 위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 ① 관계 법령을 개정한다.
____ ② 교육과정을 개편한다.
____ ③ 수업일수 220일 확보하기 위해 방학을 줄인다.
____ ④ 휴업 일의 교과 시수를 평일에 1시간씩 더 편성하여 수업시수로 인정한다
____ ⑤ 기타 ( )

12. 주 5일 수업제 운영을 위하여 관계법령을 개정한다면 수업일수는 어느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 ① 220일(현행) ___ ② 198일(교육감의 승인으로 220일의 1/10감축)
___ ③ 186일(220일-휴업일34일) ___ ④ 180일(외국의 경우)
___ ⑤ 기타 ( )

13. 주 5일 수업제 운영을 위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편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 ① 교과목의 수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
___ ② 교육과정의 양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
___ ③ 휴업일 활동과 연계된 교육과정의 내용으로 질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
___ ④ 교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교육과정을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다.
___ ⑤ 기타 ( )

14. 현행 7차 교육과정으로 주 5일 수업을 하면 평일 수업시수는 매일 1시간 정도 증가로 교사의 부담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바람직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____ ① 전담교사 확대로 교사의 수업시수 감축
____ ② 수업시수에 따른 수당지급
____ ③ 보조교사(학습도우미) 채용으로 수업 및 업무부담 경감
____ ④ 급당 학생수를 줄여 수업부담 경감
____ ⑤ 기타 ( )

15. 주 5일 수업제의 휴업 일을 무슨 요일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의 경우 프랑스는 수요일 실시하고 다른 국가들은 주로 토요일에 많이 실시함)

___ ① 월요일 ___ ② 수요일 ___ ③ 토요일
___ ④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
___ ⑤ 기타 ( )

16. 주 5일 수업제의 토요일 활동 프로그램(전일재량활동, 전일특별활동, 통합학습일, 체험학습일 · · ·등)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____ ① 창의력 및 탐구력이 향상되었다.
____ ② 소질 및 특기계발의 기회가 되었다
____ ③ 여유 ·휴식의 기회가 많아 전인적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
____ ④ 체험학습의 기회가 많아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향상되었다.
____ ⑤ 기타 ( )

17. 주 5일 수업제의 휴업일(재택학습일, 자유등교일, 체험학습일)에 학생들이 가장 애로점을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 ① 가정에서 학부모들이 아동들을 지도할 여건이 되어 있지 않다.
____ ② 사회여건이 미흡하여 외부기관의 프로그램 이용이 어렵다.
____ ③ 학습 도우미 없이 아동 스스로 학습주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____ ④ 체험학습 활동 시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
____ ⑤ 체험학습 활동 시에 따르는 안전문제가 미흡하다.
____ ⑥ 기타 ( )

18. 주 5일 수업제의 교육과정 운영에서 선생님께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 ① 휴업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안내하는 것이 어려웠다.
___ ② 과다한 학습량을 지도하기가 어려웠다.
___ ③ 휴업일 사전 ·사후지도가 어려웠다.
___ ④ 휴업일 생활 및 안전지도가 어려웠다.
___ ⑤ 기타 ( )

19. 완전 주5일 수업제 실시 시 주휴 2일로 교육의 질 저하(학력저하)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바람직한 대처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 ① 기초학력 부진 학생지도에 충실한다.
___ ② 수준별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한다.
___ ③ 기본학력 부진 학생을 휴업일에 개별지도 한다.
___ ④ 과제제시로 가정에 일임한다.
___ ⑤ 기타 ( )

III. 지원체제 및 협력관계에 대하여

20. 주 5일 수업제 운영을 위한 가정- 학교-지역사회 관계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 ① 가정 ·학교 ·지역사회간에 교육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____ ② 가정 ·지역사회의 협조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____ ③ 학교 밖 학생 학습활동은 가정과 지역사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____ ④ 학교(교육청) ·지역사회 기관단체에서 휴업일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
____ ⑤ 기타 ( )

21. 주 5일 수업제가 실시 될 경우 토요일 휴업일에 따르는 학생들의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공동적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지역에서 준비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____ ① 매우 낮다.
____ ② 낮은 편이다.
____ ③ 보통이다.
____ ④ 높은 편이다.
____ ⑤ 매우 높다.

22. 아동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교육 시설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 ① 학구단위로 도서관이나 독서실과 같은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
____ ② 아동들이 취미 ·특기활동을 위한 체육 ·문화시설의 확충
____ ③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관련 단체의 확대
____ ④ 공공시설 내에 아동들의 학습을 돕는 지원 센터 설치
____ ⑤기타 ( )

23. 주 5일 수업제 휴업일에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은 지역 내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____ ① 매우 부족하다.
____ ② 부족한 편이다.
____ ③ 보통이다.
____ ④ 충분한 편이다.
____ ⑤ 매우 충분하다.

24. 지역내 사회교육 시설이나 공간을 활용하고자 할 때 용이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____ ① 사용료(입장료)와 절차 면에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____ ② 절차는 복잡하지만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____ ③ 절차가 복잡하고 이용하기는 어렵다
____ ④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사용료(입장료) 때문에 부담스럽다
____ ⑤ 기타 ( )

25.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어떤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____ ① 학부모 도우미
____ ② 자원 봉사자
____ ③ 지역의 전문 인사
____ ④ 특기 ·적성교육의 강사
____ ⑤ 기타 ( )

26. 위의 인력자원 확보에서 가장 중요시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 ①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
____ ② 관련분야 실무 경험
____ ③ 관련분야 전문 지식
____ ④ 지도의욕 및 열성
____ ⑤기타 ( )

27. 학교 주 5일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제 면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 ① 풍부하고 다양한 사회교육 인프라 구축
___ ② 관련 정부 부서의 공동적인 자원
___ ③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조직
___ ④ 축적된 관련 정보 제공
___ ⑤ 기타 ( )
♣ 바쁘신 시간에 끝까지 성의껏 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